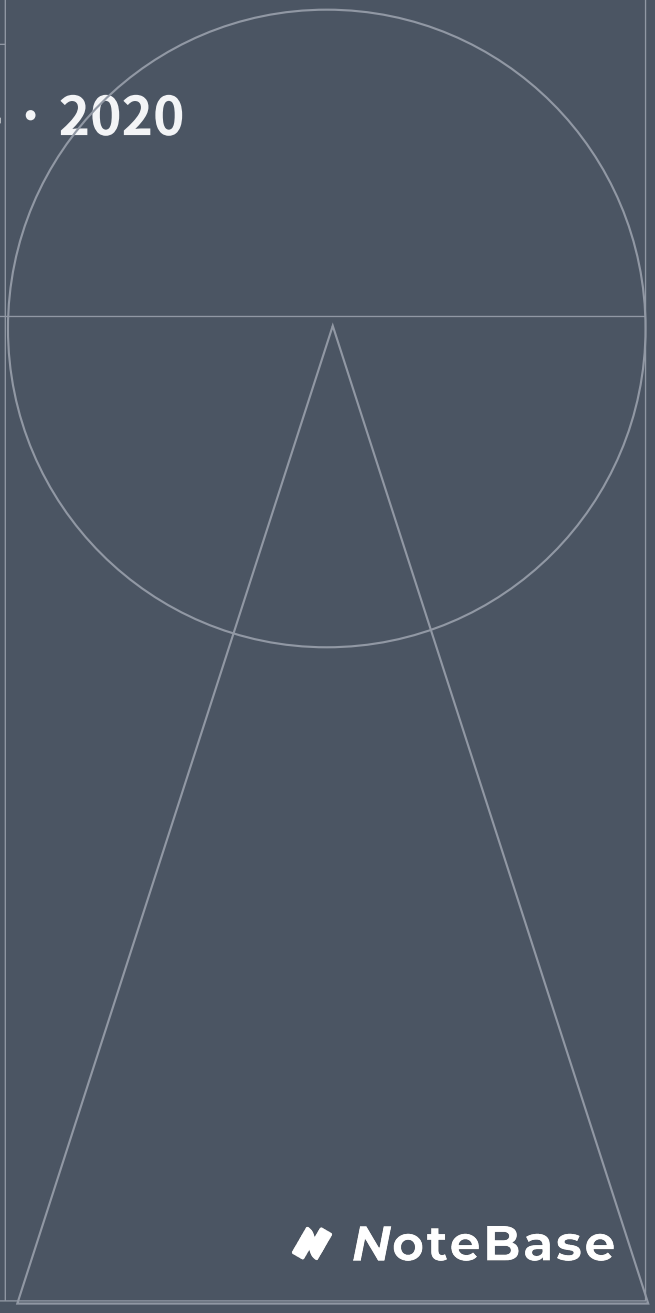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0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0

문 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②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③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이용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⑤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의 관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정보가 유용하려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이는 이미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지만, 근본적 질적특성이 없는 정보를 유용하게 바꾸지는 못한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특유 측면이므로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그 둘 모두를 해당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예측가치는 정보가 이용자의 예측 과정에 투입되어 과거 또는 현재의 기대를 형성·수정하도록 돕는 성질이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② O — 같은 경제적 현상에 여러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기업 간 또는 기간 간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기 어려워져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
③ O — 목적적합성만 있고 표현이 충실하지 않거나, 표현은 충실하지만 의사결정과 무관하면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지 못한다. 두 근본적 질적특성이 모두 필요하다.
④ O — 중요성은 기업별 정보의 성격·크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특유의 판단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가 모든 경우에 적용할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개별 상황의 중요성을 미리 결정할 수 없다.
⑤ X — 틀린 부분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보강적 질적특성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뿐, 근본적 질적특성이 결여된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보강적 질적특성의 '유용성 향상' 기능을 '유용성 창출' 기능으로 바꾼 선지이다.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표현충실성이 없으면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 유용성의 필수 기반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 그 유용성을 높이는지를 판단한다. 보강적 특성이 근본적 특성의 결여를 보완하여 정보를 유용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틀리다.

암기 포인트

근본적 특성은 유용성의 필수 조건이고, 보강적 특성은 이미 유용한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조건이다.

NoteBase

문 2.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된다.

②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③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④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는다.

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산의 정의·인식 기준과 사용가치·공정가치의 측정 개념을 구별하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인식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정의 충족만으로 언제나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지도 판단한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에 기초하므로, 특정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며 부담한 거래원가를 더해 측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은 우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인식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 측정 불확실성이 있어도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정보 작성에 필요하다. 추정치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면 추정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의 유용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③ O — 사용가치는 기업 고유의 관점에서 자산의 계속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④ O —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산정하는 측정치이며, 자산 취득 때 특정 기업에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산 자체의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거래원가 때문에 공정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⑤ X — 틀린 표현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률적 금지이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산 인식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유입가능성이 낮을 때에도 그 불확실성이 인식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인식 여부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과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문구를 절대적인 문턱처럼 적용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판단은 구별해야 하며, 낮은 유입가능성은 인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언제나 인식을 금지하는 요건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지 판단한다. '가능성이 낮으면 무조건 인식하지 않는다'처럼 확률만으로 인식을 단정하는 표현은 의심한다. 측정에서는 사용가치는 기업 고유의 기대,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이라는 차이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 정의 충족은 출발점, 인식은 정보 유용성 판단이다. 사용가치는 기업 고유 가치, 공정가치는 시장 가치이며 취득 거래원가를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②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③ 변동대가(금액)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고객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④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계약을 개시한 다음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행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익 인식의 핵심 개념인 거래가격, 수행의무, 변동대가, 계약의 존재 및 자산의 대체 용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이다. 변동대가는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되는 묶음이 될 때까지 다른 약속과 결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거래가격은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이며, 판매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② O —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그 자체로 구별되지 않으면 다른 약속과 결합하여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고객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이다. 변동대가는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④ O —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면 회계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O — 계약 개시 후 자산의 대체 용도 여부는 원칙적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수행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인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맞게 제시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의 주체만 '기업'에서 '고객'으로 바꾸었다. 거래가격과 변동대가는 모두 기업이 받을 대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 인식 선지에서는 먼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대가를 받을 주체를 확인한다.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는 두 방법 중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받을 권리의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기업이다.

암기 포인트

재화·용역은 고객에게 이전하고, 대가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4,8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x2년 4월 1일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200,000을 지출하고, 이를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계변경을 실행하였다. 20x3년 7월 1일 현금 ₩4,000,000을 수령하고 동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	잔존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재추정	₩0에서 ₩120,000으로 재추정

①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

② 유형자산처분손실 ₩252,500

③ 유형자산처분손실 ₩537,500

④ 유형자산처분이익 ₩242,500

⑤ 유형자산처분이익 ₩442,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회계추정 변경 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먼저 계산하고, 자본적지출을 장부금액에 더한 뒤 변경된 정률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일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4,800,000원
최초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5년, 0원
20x2년 4월 1일 자본적지출: 1,200,000원
변경 내용: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 잔존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120,000원
처분일과 처분대가: 20x3년 7월 1일, 4,000,000원
주의할 조건: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며, 회계추정 변경은 변경일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 내용연수이다.
연수합계법의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는 (변경일 장부금액-변경 후 잔존가치)× 해당 연도 연수÷ 연수합계이다.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처분일 장부금액이다.
변경 전 기간에는 기존 정액법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일 현재 장부금액을 기초로 새 추정치와 연수합계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변경 전 6개월의 감가상각비는 $4,800,000 \div 5 \times 6/12 = 480,000$원이다.
2. 자본적지출 직후 장부금액은 $4,800,000 - 480,000 + 1,200,000 = 5,520,000$원이다.
3. 변경 후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520,000 - 120,000 = 5,400,000$원이고, 8년의 연수합계는 $8 + 7 + \cdots + 1 = 36$이다.
4. 20x2년 4월부터 20x3년 3월까지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5,400,000 \times 8/36 = 1,200,000$원이다.
5. 20x3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5,400,000 \times 7/36 \times 3/12 = 262,500$원이다.
6. 처분일 장부금액은 $5,520,000 - 1,200,000 - 262,500 = 4,057,500$원이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4,000,000 - 4,057,500 = -57,500$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을 인식한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처분손익이 -57,500원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이 맞다.
② X — '유형자산처분손실 252,5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이다.
③ X — '유형자산처분손실 537,5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이다.
④ X — '유형자산처분이익 242,500원'은 손익의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리다.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57,500원 작으므로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이다.
⑤ X — '유형자산처분이익 442,500원'은 손익의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리다.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57,500원 작으므로 올바르게는 유형자산처분손실 57,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20x2년 4월 1일의 변경을 취득일부터 소급 적용하거나, 자본적지출 1,2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장부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연수합계법의 첫 번째 연도는 20x2년 4월부터 20x3년 3월까지이므로, 처분연도에는 첫 번째 연도의 3개월과 두 번째 연도의 3개월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추정 변경일 직전까지 기존 방법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뒤, 변경일 장부금액에 자본적지출을 반영한다. 그 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빼고 새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 다음, 처분대가에서 처분일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추정 변경은 전진 적용, 자본적지출은 장부금액에 가산,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NoteBase

문 5. (주)세무는 20x1년 12월 31일 독립 사업부로 운영되는 A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장부가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공장의 매출처 및 매입처, 그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세무가 추정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은? (단, 매출총이익률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매년 동일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한다.)

◯ 매출: ₩1,000,000
◯ 기초재고: ₩100,000
◯ 20x0년 재무비율
- 매출총이익률: 15%
- 재고자산회전율: 680%

① ₩150,000
② ₩150,500
③ ₩151,000
④ ₩151,500
⑤ ₩152,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재고자산회전율로 평균재고자산을 역산하여 화재 직전의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 1,000,000원, 기초재고 100,000원, 매출총이익률 15%, 재고자산회전율 680%이다.
구해야 할 값: 화재로 전부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액이다.
주의할 조건: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680%는 6.8회이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매출×(1-매출총이익률)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평균재고자산=기초재고+기말재고2
매출총이익률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고, 재고자산회전율의 분모인 평균재고자산을 역산하면 기말재고를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원가는 1,000,000원 × (1-0.15)=850,000원이다.
2. 평균재고자산은 850,000원 ÷ 6.8=125,000원이다.
3. 125,000=100,000+기말재고2이므로 기말재고는 150,000원이다.
4. 화재로 재고자산 전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정 재고자산 손실액은 1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기말재고와 같은 15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 '150,500원'이 틀렸다. 올바른 추정 손실액은 150,000원이다.
③ X — '151,000원'이 틀렸다. 올바른 추정 손실액은 150,000원이다.
④ X — '151,500원'이 틀렸다. 올바른 추정 손실액은 150,000원이다.
⑤ X — '152,000원'이 틀렸다. 올바른 추정 손실액은 1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회전율 680%를 680회로 사용하거나, 평균재고자산 125,000원을 곧바로 기말재고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회전율은 6.8회로 바꾸고, 평균재고자산에서 기초재고를 반영하여 기말재고를 다시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로 평균재고자산을 역산한 다음, 평균재고 공식으로 기말재고를 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전부 소실된 경우 그 기말재고 추정액이 손실액이 된다.

암기 포인트

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 → 평균재고 → 기말재고의 순서로 역산한다.

NoteBase

문 6. (주)세무의 20x1년 초 자본잉여금은 ₩100,000이고 20x1년 기중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12월 31일 자본잉여금은?

일자	거래내역
2월 1일	보통주 600주(주당액면 ₩500)를 주당 ₩7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비용 ₩30,000이 발생하였다.
3월 10일	이월결손금 ₩250,000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수 3,0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1주당 0.8주로 교부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하였다(20×1년 초 감자차손 없음).
5월 2일	화재발생으로 유형자산(장부금액 ₩400,000)이 전소되고, 보험회사로부터 ₩40,000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8월 23일	이익준비금 ₩200,000을 재원으로 하여 보통주 400주(주당액면 ₩500)를 무상증자하였다.
9월 30일	신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정부보조금 ₩80,000을 수령하였다.
11월 17일	보유중인 자기주식 500주(재취득가 주당 ₩650)를 주당 ₩700에 재발행하였다(20×1년 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없으며, 자기주식은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함).

① ₩215,000

② ₩235,000

③ ₩240,000

④ ₩245,000

⑤ ₩265,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각 거래가 자본잉여금을 증가·감소시키는지 구분한 뒤 기초 자본잉여금에 순변동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자본잉여금은 100,000원이다.

자본잉여금에 반영되는 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 순액 90,000원, 감자차익 5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원이다.

화재보험금,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본잉여금 변동 항목이 아니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잉여금 = 기초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순액 + 감자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이다.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만 합산해야 하므로 영업외 손익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제외한다.

계산 과정

1. 신주 발행: 600주 × (주당 발행가액 700원 - 주당 액면금액 500원) = 120,000원이며, 주식발행비용 30,000원을 차감하면 주식발행초과금 순증가액은 90,000원이다.
2. 결손 보전 목적의 주식병합: 3,000주가 2,400주로 줄어 자본금이 300,000원 감소한다. 이 중 이월결손금 250,000원을 보전하고 남은 50,000원은 감자차익이다.
3. 화재보험금 40,000원,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200,000원, 정부보조금 80,000원은 자본잉여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4. 자기주식 재발행: 500주 × (재발행가액 700원 - 취득원가 650원) = 25,0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5. 따라서 기말 자본잉여금은 100,000원 + 90,000원 + 50,000원 + 25,000원 = 26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15,000원은 감자차익 5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감자차익까지 포함한 265,000원이다.
② X - 235,000원은 주식발행비용 30,000원을 중복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주식발행초과금 순증가액을 90,000원으로 한 번만 반영하여 265,000원이다.
③ X - 24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자기주식처분이익까지 포함한 265,000원이다.
④ X - 245,000원은 감자차익 50,000원을 누락하면서 주식발행비용 30,000원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두 항목을 모두 정확히 반영한 265,000원이다.
⑤ O - 자본잉여금에 반영되는 90,000원, 50,000원, 25,000원을 기초 금액에 합산하면 26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액 300,000원 전부가 감자차익은 아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250,000원을 뺀 50,000원만 감자차익이다. 또한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 재발행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거래를 자본거래와 그 밖의 거래로 먼저 구분한다. 자본거래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순액, 결손 보전 후 남은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만 자본잉여금 증감에 반영한 뒤 기초 금액과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잉여금의 핵심 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다.

NoteBase

문 7.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원가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12,000	₩14,000
매입	649,700	999,500
매입운임	300	-
매출	-	1,000,000
매출환입	-	500
순인상	-	500
순인하	-	300
정상파손	100	200

① ₩652,670

② ₩652,770

③ ₩652,800

④ ₩652,870

⑤ ₩652,9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 당기 원가율과 기말재고액을 계산한 뒤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는 원가 12,000원, 판매가 14,000원이다. 당기 매입은 원가 649,700원, 판매가 999,500원이고, 매입운임 300원은 원가에 가산한다. 순인상 500원은 원가율의 판매가 분모에 포함하지만, 저가기준에서는 순인하 300원을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한다.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하며, 정상파손은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 계산에서는 차감하되 그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가율=당기 매입원가+매입운임당기 매입판매가+순인상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당기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기말재고 판매가에 당기 원가율을 적용한다.
매출원가=판매가능재고 원가-기말재고 원가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원가율을 계산한다.
$\frac{649,700+300}{999,500+500}=\frac{650,000}{1,000,000}=65.00\%$
2. 기말재고의 판매가를 계산한다.
14,000+999,500+500-300-1,000,000+500-200=14,000원
3. 선입선출법상 기말재고는 당기 매입분이므로 기말재고 원가는 14,000원에 당기 원가율 65%를 적용한 9,100원이다.
14,000×65\%=9,100원
4. 판매가능재고 원가는 662,000원이고, 정상파손의 원가 100원은 정상적인 영업손실로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12,000+649,700+300)-9,100=652,900원

선지 판단

① X — 652,67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652,900원보다 230원 적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652,900원이다.
② X — 652,77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652,900원보다 130원 적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652,900원이다.
③ X — 652,800원은 정상파손 원가 100원을 판매가능재고 원가에서 별도로 차감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정상파손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652,900원이다.
④ X — 652,87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652,900원보다 30원 적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652,900원이다.
⑤ O — 판매가능재고 원가 662,000원에서 기말재고 원가 9,100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652,9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입운임 300원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거나, 저가기준인데도 순인하 300원을 원가율 분모에 포함하면 원가율이 달라진다. 또한 정상파손 원가 100원을 매출원가에서 다시 제외하면 ③의 652,800원이 되므로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은 먼저 원가율 분모에서 순인하를 제외하고, 선입선출법이면 기초재고를 원가율 계산에서 분리한다. 그다음 기말재고 판매가에 당기 원가율을 적용하고, 판매가능재고 원가에서 기말재고 원가만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저가기준은 순인하 제외, 선입선출은 당기 원가율 적용, 정상파손 원가는 매출원가 포함이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단일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x1년 결산이전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수량부족과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원가는 ₩989,400이다. 재고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기초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수량부족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량부족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당기매입 관련 자료
- 당기상품매입액: ₩800,000
- 매입운임: ₩60,000
- 관세환급금: ₩10,000

◯ 기말재고 실사자료
- 기말재고 장부상 수량: 500개
- 기말재고 실제 수량: 480개(14개는 정상적인 수량부족임)
- 단위당 취득단가: ₩900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0

① ₩584,000
② ₩586,600
③ ₩587,400
④ ₩589,400
⑤ ₩596,6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에는 기말재고의 장부상 수량과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정상감모·비정상감모·재고자산평가손실의 결산수정은 그 후에 구분한다.

조건 정리

당기 순매입액은 상품매입액 800,000원에 매입운임 60,000원을 더하고 관세환급금 10,000원을 차감한 850,000원이다.
결산수정 전 기말재고 장부금액은 장부상 수량 500개에 단위당 취득원가 900원을 곱한 450,000원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989,400원은 정상적인 수량부족과 평가손실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매출원가이므로,
기초재고를 구하는 주 계산에는 실제 수량 480개나 순실현가능가치 800원을 먼저 적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 순매입액-결산수정 전 기말재고 장부금액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항한다.
기초재고=결산수정 전 매출원가-당기 순매입액+결산수정 전 기말재고 장부금액
주어진 매출원가가 감모와 평가손실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므로 같은 시점의 장부상 기말재고를 대응시키는 공식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순매입액은 800,000원 + 60,000원 - 10,000원 = 850,000원이다.
2. 결산수정 전 기말재고 장부금액은 500개 × 900원 = 450,000원이다.
3. 기초재고는 989,400원 - 850,000원 + 450,000원 = 589,400원이다.

검산하면 정상감모는 14개 × 900원 = 12,600원, 비정상감모는 6개 × 900원 = 5,400원, 평가손실은 480개 × (900원 - 800원) = 48,000원이다.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을 반영한 매출원가는 1,050,000원이고 기말재고는 384,000원이다. 비정상감모 5,400원을 기타비용으로 분리하면 589,400원 + 850,000원 - 384,000원 - 5,400원 = 1,050,000원으로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X — 584,000원은 조정 후 매출원가 1,050,000원에서 순매입액 850,000원을 빼고 기말재고 384,000원을 더하면서, 매출원가가 아니라 기타비용인 비정상감모 5,400원의 가산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584,000원 + 5,400원 = 589,400원이다.
② X — 기초재고를 586,600원으로 놓으면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는 586,600원 + 850,000원 - 450,000원 = 986,600원이 되어 주어진 989,4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기초재고는 589,400원이다.
③ X — 기초재고를 587,400원으로 놓으면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는 587,400원 + 850,000원 - 450,000원 = 987,400원이 되어 주어진 금액보다 2,000원 작다. 올바른 금액은 589,400원이다.
④ O — 589,400원 + 850,000원 - 450,000원 = 989,400원으로 문제의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기초재고를 596,600원으로 놓으면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는 596,600원 + 850,000원 - 450,000원 = 996,600원이 되어 주어진 금액보다 7,200원 크다. 올바른 금액은 589,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실제 수량 480개와 순실현가능가치 800원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산수정 전 공식에 바로 넣는 것이다. 결산수정 전 매출원가에는 장부상 500개와 취득원가 900원을 대응시키고,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에 별도로 반영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진 매출원가가 결산수정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 결산수정 전이면 장부상 기말재고를 사용해 기초재고를 역산하고, 이후 정상감모·비정상감모·평가손실을 각각 지정된 비용으로 배분해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결산 전에는 장부수량×취득원가, 결산 후에는 정상감모·평가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이다.

NoteBase

문 9. (주)세무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 일부를 20x0년과 20x1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20x1년 12월 31일 (A)에 표시될 현금은? (단, 현금의 변동은 제시된 영업활동에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1. 12. 31.	20×0. 12. 31.
현금	(A)	₩300,000
매출채권	110,000	100,000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10,000	9,000
재고자산	100,000	80,000
매입채무	80,000	60,000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년도	20×0년도
매출	₩1,800,000	₩1,500,000
매출원가	1,500,000	1,200,000
매출채권 손상차손	7,000	6,000

① ₩584,000

② ₩590,000

③ ₩594,000

④ ₩604,000

⑤ ₩61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변동으로 현금회수액을 구하고,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의 변동으로 현금지급액을 구한 뒤 기말 현금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현금은 300,000원이다. 매출은 전액 외상이고, 매출채권은 10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손충당금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가했다. 대손상각비는 7,000원이다. 매출원가는 1,500,000원이고, 재고자산은 8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매입채무는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증가했다. 현금 변동은 제시된 영업활동에서만 발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대손충당금 관계: 기초 대손충당금 + 대손상각비 - 대손처리액 = 기말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관계: 기초 매출채권 + 외상매출액 - 현금회수액 - 대손처리액 = 기말 매출채권
재고자산 관계: 기초 재고자산 + 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 재고자산
매입채무 관계: 기초 매입채무 + 외상매입액 - 현금지급액 = 기말 매입채무
각 계정의 기초 잔액에 당기 증가액을 더하고 감소액을 빼면 기말 잔액이 되므로 이 관계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대손처리액은 $9{,}000 + 7{,}000 - 10{,}000 = 6{,}000$원이다.
2.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은 $100{,}000 + 1{,}800{,}000 - 6{,}000 - 110{,}000 = 1{,}784{,}000$원이다.
3. 재고자산 매입액은 $1{,}500{,}000 + 100{,}000 - 80{,}000 = 1{,}520{,}000$원이다.
4.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60{,}000 + 1{,}520{,}000 - 80{,}000 = 1{,}500{,}000$원이다.
5. 기말 현금은 $300{,}000 + 1{,}784{,}000 - 1{,}500{,}000 = 58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기말 현금 584,000원과 일치한다.
② X — 590,000원은 대손처리액 6,000원을 매출채권 감소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금액 590,000원은 58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현금회수액 1,784,000원에서 현금지급액 1,500,000원을 차감하면 순증가액은 284,000원이므로 기말 현금은 594,000원이 될 수 없다. 틀린 금액 594,000원은 58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기초 현금 300,000원에 순증가액 284,000원을 더한 금액은 604,000원이 아니다. 틀린 금액 604,000원은 58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의 변동을 모두 반영한 기말 현금은 584,000원이므로 61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10,000원은 58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매출채권이 증가한 금액만 매출에서 차감하면 대손처리액을 빠뜨리게 된다. 특히 ②의 590,000원은 대손충당금 변동으로 구한 대손처리액 6,000원을 누락한 결과이다. 또한 매입액은 매출원가와 같지 않으며 재고자산 증가액 20,000원을 더해 1,520,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대손처리액을 구한 뒤 매출채권 계정으로 현금회수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재고자산 계정에서 매입액을 구하고 매입채무 계정으로 현금지급액을 계산한 후, 기초 현금에 회수액을 더하고 지급액을 차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현금 순서로 계정을 연결한다.

NoteBase

문 1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2년 말과 20x4년 말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x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200,000	₩1,500,000
사용가치	1,400,000	1,300,000

① ₩200,000

② ₩210,000

③ ₩300,000

④ ₩310,000

⑤ ₩3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이후 감가상각한 뒤,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환입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2,000,000원, 잔존가치는 400,000원,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을 적용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따라서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1,400,000원이고, 20×4년 말 회수가능액은 1,500,000원이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손상차손 인식 후 연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이다.
손상차손환입액은 (회수가능액-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환입 전 장부금액)이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회복하더라도 환입 한도가 있으므로 이 공식을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400,000}{10}=160,000$원이다.
2. 20×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2,000,000-160,000\times 2=1,68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1,400,000원까지 감액하므로 손상차손은 280,000원이다.
3. 손상 후 잔여내용연수 8년 동안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400,000-400,000}{8}=125,000$원이다. 따라서 20×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1,400,000-125,000\times 2=1,150,000$원이다.
4. 20×4년 말 회수가능액은 $\max(1,500,000, 1,300,000)=1,500,000$원이므로 한도 적용 전 환입가능액은 350,000원이다.
5.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20×4년 말 장부금액은 $2,000,000-160,000\times 4=1,360,000$원이다. 따라서 환입 한도는 $1,360,000-1,150,000=210,000$원이고, 손상차손환입액은 21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0,000원은 환입 한도 21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환입액은 210,000원이다.
② O — 환입 전 장부금액 1,150,000원을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1,360,000원까지만 회복할 수 있으므로 환입액은 210,000원이다.
③ X — 300,000원은 회수가능액과 환입 한도를 함께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환입액은 210,000원이다.
④ X — 310,000원은 손상 후 감가상각을 반영한 환입 전 장부금액과 환입 한도를 사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환입액은 210,000원이다.
⑤ X — 350,000원은 회수가능액 1,500,000원과 환입 전 장부금액 1,150,000원의 차이로서 환입 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한도를 적용한 올바른 환입액은 2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350,000원은 회수가능액 상승분을 전부 환입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오답이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장부금액 1,360,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상 후 감가상각비로 환입 직전 장부금액을 구한다. 그다음 회수가능액까지의 회복액과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 장부금액까지의 회복액을 각각 구하고,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환입액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가능하지만, 최종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을 넘지 못한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주)대한의 주식 A를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이하 "FVOCI") 지정분류 하였다. 동 주식 A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고, 다른 거래가 없을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동 FVOCI 취득과 처분은 공정가치로 한다.)

구분	20×1년 기중	20×1년 기말	20×2년 기말	20×3년 기중
회계처리	취득	후속평가	후속평가	처분
공정가치	₩100,000	₩110,000	₩98,000	₩99,000
거래원가	500	–	–	200

① 20x1년 기중 FVOCI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② 20x1년 기말 FVOCI 평가이익은 ₩10,000이다.

③ 20x2년 기말 FVOCI 평가손실이 ₩3,000 발생된다.

④ 20x3년 처분 직전 FVOCI 평가손실 잔액은 ₩2,000이다.

⑤ 20x3년 처분 시 당기손실 ₩200이 발생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지정한 경우 취득 시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이후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 시 공정가치는 100,000원, 거래원가는 500원이다. 이후 공정가치는 20×1년 말 110,000원, 20×2년 말 98,000원, 20×3년 처분 직전 99,000원이며, 처분 거래원가는 2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최초 장부금액 = 취득 시 공정가치 + 취득 거래원가
당기 평가손익 = 당기 말 공정가치 - 직전 장부금액
누적 평가손익 = 현재 공정가치 - 최초 장부금액

FVOCI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각 시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장부금액은 100,000원 + 500원 = 100,500원이다.
2. 20×1년 평가이익은 110,000원 - 100,500원 = 9,500원이다.
3. 20×2년 당기 평가손실은 110,000원 - 98,000원 = 12,000원이며, 누적 평가손실은 100,500원 - 98,000원 = 2,500원이다.
4. 20×3년에는 처분 직전 공정가치가 98,000원에서 99,000원으로 올라 당기 평가이익 1,000원이 발생한다. 처분 직전 누적 평가손실은 100,500원 - 99,000원 = 1,500원이다.
5. 공정가치 99,000원으로 처분하므로 자산 처분가격과 장부금액 사이의 차이는 없다. 다만 처분 거래원가 200원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지분상품 FVOCI의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취득원가는 100,000원'이 틀렸다. 취득 거래원가 500원을 포함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100,500원이다.
② X — '평가이익은 10,000원'이 틀렸다. 최초 장부금액 100,500원과 기말 공정가치 110,000원의 차이인 9,500원이 평가이익이다.
③ X — '20×2년 평가손실이 3,000원 발생'이 틀렸다. 20×2년 당기에 발생한 평가손실은 직전 공정가치 110,000원과 당기 말 공정가치 98,000원의 차이인 12,000원이며, 20×2년 말 누적 평가손실은 2,500원이다.
④ X — '처분 직전 평가손실 잔액은 2,000원'이 틀렸다. 최초 장부금액 100,500원과 처분 직전 공정가치 99,000원의 차이이므로 누적 평가손실 잔액은 1,500원이다.
⑤ O — 공정가치로 처분하여 자산 자체의 처분손익은 없지만, 처분 거래원가 200원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취득 거래원가 500원을 최초 장부금액에서 빠뜨리면 ②와 ④의 오답 금액이 나온다. 또한 ③에서는 당기 평가손실 12,000원과 누적 평가손실 2,500원을 구분해야 한다.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 여부와 처분 거래원가의 당기손익 처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득 거래원가를 포함한 최초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당기 평가손익은 직전 공정가치와 비교하고, 누적 평가손익은 최초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처분 거래원가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과 분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상품 FVOCI는 '취득 거래원가는 자산에 포함,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 처분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2. 20x1년 초 도소매업으로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는 현금 ₩1,800을 투자하여 상품 2개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을 단위당 ₩800에 판매하여 20x1년 말 현금은 ₩2,200이 되었다. 20x1년 중 물가상승률은 10%이며, 20x1년 기말 상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70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x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① 이익 ₩100, 자본유지조정 ₩300

② 이익 ₩180, 자본유지조정 ₩220

③ 이익 ₩220, 자본유지조정 ₩180

④ 이익 ₩300, 자본유지조정 ₩100

⑤ 이익 ₩400, 자본유지조정 ₩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 자본의 명목금액이 아니라 기초의 영업능력, 즉 구입할 수 있었던 상품 수량을 기말에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먼저 자본으로 보전하고 그 초과액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조건 정리

기초 투자액: ₩1,800
기초 상품 단가: ₩600
기말 순자산: 현금 ₩2,200
기말 상품 단가: ₩700
기초 투자액이 나타내는 영업능력은 상품 3개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용할 공식

기초 영업능력=기초 투자액기초 상품 단가
기말 유지 필요 자본=기초 영업능력×기말 상품 단가
자본유지조정=기말 유지 필요 자본-기초 투자액
이익=기말 순자산-기말 유지 필요 자본
실물자본유지개념은 기초의 상품 구입 능력 3개를 보전해야 하므로 일반 물가상승률 10%가 아니라 상품의 기말 구입가격을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 영업능력은 ₩1,800 ÷ ₩600 = 3개이다.
2. 이 영업능력을 기말에도 유지하려면 3개 × ₩700 = ₩2,100이 필요하다.
3. 자본유지조정은 ₩2,100 - ₩1,800 = ₩300이다.
4. 기말 순자산 ₩2,200 중 유지할 자본 ₩2,100을 초과하는 이익은 ₩100이다.

따라서 명목 순자산 증가액 ₩400은 이익 ₩100과 자본유지조정 ₩300으로 나뉜다.

선지 판단

① O — 이익 ₩100, 자본유지조정 ₩300은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 이익 ₩180과 자본유지조정 ₩220은 기초의 상품 3개 구입 능력을 보전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익 ₩100, 자본유지조정 ₩300이다.

③ X — 자본유지조정 ₩180은 기초 투자액 ₩1,800에 일반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한 값이고, 이는 일반구매력 기준의 금융자본유지 계산이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상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므로 올바르게는 이익 ₩100, 자본유지조정 ₩300이다.

④ X — 자본유지조정 ₩100은 상품 한 개의 가격 상승분만 반영한 값이다. 기초 투자액 전체가 나타내는 상품 3개의 구입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자본유지조정 ₩300, 이익 ₩100이다.

⑤ X — 이익 ₩400은 기말 순자산 ₩2,200에서 명목 기초자본 ₩1,800만 차감하여 실물자본유지조정을 무시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400을 이익 ₩100과 자본유지조정 ₩300으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일반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하면 ③의 자본유지조정 ₩180과 이익 ₩220이 나오지만, 이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의 계산이 아니다. 또 실제로 산 상품이 2개라는 사실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남은 현금 ₩600도 상품 1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이므로 기초 투자액 전체의 영업능력은 상품 3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자본유지 문제에서는 먼저 기초 투자액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재화 수량을 구하고, 그 수량을 기말가격으로 다시 평가한다. 그 증가분은 자본유지조정이고, 기말 순자산이 유지 필요 자본을 초과한 금액만 이익이다.

암기 포인트

실물자본유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영업능력을 보전한다. 이 문항에서는 상품 3개 능력의 보전액 ₩2,100이 기준이다.

NoteBase

문 13.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영업용 차량을 취득(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정부로부터 취득원가의 30%를 보조받고, 이를 부채(이연수익법)로 회계처리 하였다. 20x3년 7월 1일에 동 영업용 차량을 현금 ₩600,000에 처분하였다면,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처분시점에서 제거해야 할 부채(이연정부보조금수익)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① ₩126,000

② ₩144,000

③ ₩162,000

④ ₩198,000

⑤ ₩234,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일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잔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정부보조금: 1,200,000원 × 30% = 360,000원
내용연수: 5년 = 60개월
보유 기간: 20x1년 4월 1일부터 20x3년 7월 1일 처분 직전까지 27개월
구해야 할 값: 처분시점에 남아 있는 이연정부보조금수익

사용할 공식

정액법이므로 정부보조금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으로 인식한다.

월별 보조금수익=360,00060=6,000원

처분 시 제거할 이연수익=최초 보조금-처분 전까지 인식한 보조금수익

차량의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므로 관련 보조금도 같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취득 시 이연정부보조금수익은 1,200,000원 × 30% = 360,000원이다.
2. 월별 보조금수익은 360,000원 ÷ 60개월 = 6,000원이다.
3. 보유 기간은 20x1년 9개월, 20x2년 12개월, 20x3년 6개월로 총 27개월이다.
4. 처분 전까지 인식한 보조금수익은 6,000원 × 27개월 = 162,000원이다.
5. 처분시점에 제거할 이연수익 잔액은 360,000원 - 162,000원 = 19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26,000원은 처분시점의 미인식 잔액이 아니다. 27개월의 수익 인식 후 남는 금액으로 고치면 198,000원이다.
② X — 144,000원은 보유 기간을 36개월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잔액이다. 실제 보유 기간은 27개월이므로 198,000원이다.
③ X — 162,000원은 처분 전까지 이미 인식한 보조금수익이다. 제거할 부채는 그 금액을 최초 이연수익에서 차감한 198,000원이다.
④ O — 최초 이연수익 360,000원에서 27개월간 인식한 162,000원을 차감하면 198,000원이다.
⑤ X — 234,000원은 처분시점의 미인식 잔액이 아니다. 월할상각한 27개월을 정확히 반영한 잔액으로 고치면 19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162,000원은 제거할 부채가 아니라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누계액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20x1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20x3년은 처분일 전인 6월까지 6개월만 반영해야 한다. 차량의 처분대금 600,000원과 잔존가치 200,000원은 이연정부보조금수익 잔액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연수익법에서는 먼저 보조금 총액을 구하고, 내용연수 전체의 월수로 나눈 뒤, 처분 전까지의 보유 개월 수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최초 보조금에서 인식 누계액을 차감하면 제거할 이연수익 잔액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연정부보조금 잔액 = 최초 보조금 - 처분 전까지의 보조금수익 누계액이다.

NoteBase

문 14. (주)세무는 20x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x3년 기말 현재 발행된 주식과 배당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경우,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과거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보통주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수	3,000주
	배당률	4%
우선주 (누적적, 완전참가)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수	2,000주
	배당률	6%

① ₩432,000

② ₩568,000

③ ₩576,000

④ ₩640,000

⑤ ₩88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 순서를 적용하여 보통주에 배분되는 현금배당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보통주 액면자본금: 1,000원 × 3,000주 = 3,000,000원
우선주 액면자본금: 1,000원 × 2,000주 = 2,000,000원
보통주 1년 기본배당: 3,000,000원 × 4% = 120,000원
우선주 1년 우선배당: 2,000,000원 × 6% = 120,000원
우선주는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않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3개년 우선배당을 누적한다. 또한
완전참가적이므로 기본배당을 받은 뒤 남는 배당에도 보통주와 함께 참가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간 기본배당 = 액면자본금 × 배당률
누적 우선배당 = 우선주의 연간 기본배당 × 미지급 연수
참가배당 = 기본배당 배분 후 잔액 × 각 종류주식의 액면자본금 비율

누적적 우선주는 미지급 우선배당을 먼저 보전하고, 완전참가적 우선주는 보통주와 각자의 기본배당을 받은 뒤 잔액에도 액면자본금 비율로 참가하므로 이 배분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우선주의 누적 우선배당은 120,000원 × 3년 = 360,000원이다.
2. 보통주의 당기 기본배당은 120,000원이다.
3. 기본배당 배분 후 잔액은 1,000,000원 - 360,000원 - 120,000원 = 520,000원이다.
4.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자본금 비율은 3,000,000원 : 2,000,000원 = 3 : 2이므로, 보통주의 참가배당은 520,000원 × 3/5 = 312,000원이다.
5. 보통주 총배당은 120,000원 + 312,000원 = 432,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보통주의 기본배당 120,000원과 참가배당 312,000원의 합계가 ₩432,000이므로 옳다.
② X — ₩568,000은 우선주의 누적 우선배당 360,000원과 참가배당 208,000원을 합한 우선주 배당액이다. 보통주 배당금으로는 ₩568,000이 아니라 ₩432,000이 옳다.
③ X — 보통주의 배당액은 기본배당 120,000원과 잔액의 3/5인 312,000원만 합산하므로 ₩576,000이 될 수 없다. ₩576,000이 아니라 ₩432,000이 옳다.
④ X — ₩640,000은 총배당액에서 누적 우선배당 360,000원만 차감한 잔액을 모두 보통주 몫으로 본 값이다. 완전참가적 우선주의 참가배당 208,000원을 추가로 배분해야 하므로 보통주 배당금은 ₩640,000이 아니라 ₩432,000이다.
⑤ X — ₩880,000은 우선주의 당기 1년분 120,000원만 차감하고 나머지를 모두 보통주에 배분한 값이다. 과거 2년분 누적 우선배당과 우선주의 참가배당을 반영해야 하므로 보통주 배당금은 ₩880,000이 아니라 ₩432,0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누적적'과 '완전참가적'을 각각 한 번씩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적적 조건 때문에 우선주의 미지급 3개년분을 먼저 배분하고, 완전참가적 조건 때문에 기본배당 후 잔액도 보통주와 우선주에 3:2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②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의 최종 배당액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선주의 누적 미지급 배당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보통주의 당기 기본배당을 배분한다. 그 후 남은 금액을 참가 조건에 따라 액면자본금 비율로 나누고, 문제에서 요구한 종류주식의 기본배당과 참가배당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은 과거 미지급분까지, 완전참가는 기본배당 후 잔액까지 배분한다.

NoteBase

문 15.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②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한다면, 재무제표에 투자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③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

⑤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고기간 후 사건을 수정사건과 비수정사건으로 구분하고, 배당 선언과 계속기업 가정에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정사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에 관한 증거를 보고기간 후에 얻은 사건이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과 관련 공시를 수정한다.
비수정사건: 보고기간 후에 새로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인식 금액은 수정하지 않으며, 중요하면 사건의 성격과 재무영향을 공시한다.
보고기간 후 선언한 배당은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계속기업 가정이 더는 적절하지 않으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 수정한다'이다. 이는 비수정사건이므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공시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투자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이다. 보고기간말과 발행승인일 사이의 공정가치 하락이 보고기간 후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다면 비수정사건이므로 인식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재무영향을 공시한다.
③ O —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면 보고기간말 현재 배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이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한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고기간 후 입수하면 그 정보를 반영하여 관련 공시도 수정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이다. 경영진이 청산이나 경영활동 중단을 의도하거나 그 밖의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②는 사건이 발행승인일 전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정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판단 기준은 발생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의 증거인지 여부이다. ③은 배당 선언일과 보고기간말의 현재의무 존재 여부를 구분하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기존 상황을 확인하는지, 보고기간 후 새 상황을 나타내는지 구분한다. 기존 상황이면 금액과 관련 공시를 수정하고, 새 상황이면 금액은 수정하지 않되 중요할 때 공시한다. 이후 배당은 보고기간말의 의무 존재 여부, 계속기업은 청산·중단 의도나 현실적 대안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존 상황의 증거는 수정, 이후 새 상황은 비수정, 사후 선언 배당은 기말부채가 아니다. 청산·중단이 불가피하면 계속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② 중간재무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연도 동일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③ 중간재무보고서상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④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중간재무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뢰성은 높고, 적시성은 낮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을 때의 공시, 재무제표별 비교기간, 중요성 판단 기준 및 중간재무보고의 정보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간재무보고는 1년보다 짧은 중간기간에 작성하는 재무보고로서, 최근 연차재무보고 이후의 변동을 적시에 제공한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므로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의 성과를 보여 주므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각각 직전 회계연도의 대응 기간과 비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그 사실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이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중간재무보고 기준을 준수하면 그 준수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직전연도 동일 기간 말'이다.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③ O —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 및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의 성과를 표시하고, 각각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한 중간기간 및 누적기간과 비교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자료에 근거'이다. 인식·측정·분류·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은 중간기간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뢰성은 높고, 적시성은 낮다'이다. 중간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연차재무보고보다 제공 정보가 제한적이고 추정의 사용 정도가 높을 수 있지만, 더 이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므로 적시성은 높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모든 비교기간을 '전년도 같은 기간'으로 통일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재무상태표는 시점 자료이므로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자료이므로 전년도 대응 중간기간 및 누적기간과 비교한다. ④와 ⑤는 연차재무보고와 중간재무보고의 속성을 뒤바꾼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무제표가 시점 자료인지 기간 자료인지 구분한다. 재무상태표이면 중간기말과 직전 연차말을 대응시키고, 포괄손익계산서이면 당기 중간기간·누적기간과 전기 대응 기간을 연결한다. 중요성은 중간기간 자료, 정보 특성은 높은 적시성과 상대적으로 큰 추정 의존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무상태표는 중간기말 대 직전 연차말, 손익은 당기 대 전기 대응 기간, 중요성은 중간기간 자료이다.

NoteBase

문 17.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체결은 운용리스 체결 시점에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②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제공자는 자신의 리스총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③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체결은 금융리스 체결 시점에 기초자산의 원가(원가와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장부금액)에서 보증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금융수익 인식, 리스개설직접원가 처리 및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손익 인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리스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이를 대부분 이전하지 않는 리스이다. 금융리스의 금융수익은 리스순투자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이 반영되도록 인식한다. 운용리스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한 뒤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운용리스 체결 시점에 매출이익을 인식한다'이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는 판매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체결 시점에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리스총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이다. 금융수익은 리스총투자가 아니라 리스순투자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이 반영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③ O — 운용리스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X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이고,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으면 운용리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보증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개시일에 인식하는 매출원가는 기초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와 다를 경우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를 바꾸고, ④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 기준을 뒤집으며, ⑤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보증잔존가치로 바꾼 선지이다. 비슷한 용어의 한 단어 차이가 정오를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한다. 그다음 금융수익의 기준은 리스순투자, 운용리스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에 가산 후 기간비용화, 제조자·판매자의 금융리스 매출원가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보상 대부분 이전은 금융리스, 금융수익은 순투자, 운용리스 직접원가는 자산 가산 후 기간비용, 제조자·판매자 금융리스 매출원가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차감이다.

NoteBase

문 18.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7%,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사채의 액면금액 ₩1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만기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액면금액의 113.5%를 보장한다. (주)세무의 20x1년도 이자비용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	12%	7%	12%
1년	0.9346	0.8929	0.9346	0.8929
2년	0.8734	0.7972	1.8080	1.6901
3년	0.8163	0.7118	2.6243	2.4018

① ₩70,000

② ₩117,122

③ ₩122,777

④ ₩135,000

⑤ ₩158,98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를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한 뒤, 그 최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원이고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70,000원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의 만기상환액은 1,000,000 × 113.5% = 1,135,000원이다.
부채요소는 동일 조건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며, 표의 3년·12% 정상연금 현가계수 2.4018과 현가계수 0.7118을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
20x1년 이자비용=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 12\%
표시이자율 7%는 실제 현금이자를 정하는 비율이고, 이자비용은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시장이자율인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간 현금이자는 1,000,000 × 7% = 70,000원이다.
2.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70,000 × 2.4018 = 168,126원이다.
3.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는 1,135,000 × 0.7118 = 807,893원이다.
4.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은 168,126 + 807,893 = 976,019원이다.
5. 20x1년 이자비용은 976,019 × 12% = 117,122.28원이므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17,122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70,000원은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 7%를 곱한 현금이자일 뿐 이자비용이 아니다. '70,000원'은 '117,12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 976,019원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하고 반올림하면 117,122원이다.
③ X — 122,777원은 부채요소의 현재가치 976,019원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22,777원'은 '117,12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135,000원은 액면금액의 13.5%에 해당하는 상환할증액으로, 당기 이자비용이 아니다. '135,000원'은 '117,122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58,981원은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을 사용한 계산 결과가 아니다. '158,981원'은 '117,122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율 7%로 계산한 현금이자 70,000원을 곧바로 이자비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만기상환액을 액면금액 1,000,000원으로만 잡으면 안 되고, 미행사 시 보장되는 113.5%인 1,135,000원을 현재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금융상품의 이자비용은 먼저 계약상 이자와 만기상환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구한 다음, 그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판단한다. 표시이자율은 현금지급액, 유효이자율은 이자비용 계산에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이자는 액면금액×표시이자율, 이자비용은 부채 장부금액×유효이자율이다. 상환할증 조건이 있으면 만기상환액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19.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사채A(액면금액 ₩1,000,000, 만기 5년,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20x4년 1월 1일 유효이자율이 연 8%로 하락함에 따라 (주)민국에게 새로운 사채B(액면금액 ₩1,000,000, 만기 2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여 수취한 현금으로 사채A를 조기상환 하였다. (주)세무가 20x4년 1월 1일 인식할 사채A의 상환손익과 사채B의 발행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3%	5%	8%	10%	3%	5%	8%	10%
2년	0.9426	0.9070	0.8573	0.8264	1.9135	1.8594	1.7833	1.7355
5년	0.8626	0.7835	0.6806	0.6209	4.5797	4.3295	3.9927	3.7908

① 사채A 상환손익: 손실 ₩2,396 / 사채B 발행금액: ₩878,465

② 사채A 상환손익: 손실 ₩2,396 / 사채B 발행금액: ₩913,195

③ 사채A 상환손익: 손실 ₩2,396 / 사채B 발행금액: ₩915,591

④ 사채A 상환손익: 이익 ₩2,396 / 사채B 발행금액: ₩910,799

⑤ 사채A 상환손익: 이익 ₩2,396 / 사채B 발행금액: ₩1,0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A의 상환 직전 장부금액을 구하고, 시장이자율로 사채B의 발행금액을 계산한 뒤 상환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상환손익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채A: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 유효이자율 10%, 만기 5년이다. 매년 현금이자는 ₩50,000이다.
사채B: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3%,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8%, 만기 2년이다. 매년 현금이자는 ₩30,000이다.
20x4년 1월 1일은 사채A 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20x1년부터 20x3년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상각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사채 발행금액은 미래 원금과 이자의 현재가치 합계이다.
발행금액=액면금액의 현재가치+이자연금의 현재가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기말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현금이자
사채를 장부금액보다 적은 현금으로 상환하면 그 차이는 상환이익이다.
상환이익=상환 직전 장부금액-상환대가
사채A는 유효이자율법으로 후속 측정하고, 사채B는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 8%로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사채A의 최초 장부금액
₩1,000,000 × 0.6209 + ₩50,000 × 3.7908 = ₩810,440
2. 사채A의 장부금액 상각
20x1년 말: ₩810,440 + ₩81,044 - ₩50,000 = ₩841,484
20x2년 말: ₩841,484 + ₩84,148 - ₩50,000 = ₩875,632
20x3년 말: ₩875,632 + ₩87,563 - ₩50,000 = ₩913,195
따라서 20x4년 1월 1일 상환 직전 사채A의 장부금액은 ₩913,195이다.
3. 사채B의 발행금액
₩1,000,000 × 0.8573 + ₩30,000 × 1.7833 = ₩910,799
이 현금으로 사채A를 상환하므로 상환대가는 ₩910,799이다.
4. 사채A의 상환손익
₩913,195 - ₩910,799 = ₩2,396
부채의 장부금액보다 상환대가가 작으므로 ₩2,396의 상환이익을 인식한다.

선지 판단

① X. 상환손익을 손실로 표시했고 사채B 발행금액도 ₩878,465로 계산하여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채A 상환이익 ₩2,396, 사채B 발행금액 ₩910,799이다.
② X. 상환손익을 손실로 표시했고 사채B 발행금액을 ₩913,195로 제시하여 틀렸다. ₩913,195는 사채A의 상환 직전 장부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사채A 상환이익 ₩2,396, 사채B 발행금액 ₩910,799이다.
③ X. 상환손익을 손실로 표시했고 사채B 발행금액도 ₩915,591로 계산하여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채A 상환이익 ₩2,396, 사채B 발행금액 ₩910,799이다.
④ O. 사채A의 상환 직전 장부금액 ₩913,195에서 상환대가 ₩910,799를 차감하면 상환이익 ₩2,396이고, 사채B의 발행금액은 ₩910,799이다.
⑤ X. 사채A 상환이익 ₩2,396은 맞지만 사채B 발행금액 ₩1,000,000이 틀렸다. 사채B의 표시이자율 3%가 시장이자율 8%보다 낮으므로 할인발행되며, 올바른 발행금액은 ₩910,799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913,195를 사채B의 발행금액으로 오인하거나 상환손익의 부호를 반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913,195는 사채A의 장부금액이고, 사채B의 발행금액은 8% 현재가치계수로 별도 계산한 ₩910,799이다. 부채 장부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여 제거했으므로 차액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존 사채의 장부금액을 최초 인식금액부터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다음으로 새 사채의 원금과 표시이자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금액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부채 장부금액과 실제 상환대가를 비교하며, 장부금액이 더 크면 상환이익이고 상환대가가 더 크면 상환손실이다.

암기 포인트

기존 사채는 원래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상각하고, 새 사채는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로 가격을 정한다. 부채는 장부금액보다 싸게 갚으면 이익이다.

NoteBase

문 20. 20x1년 초에 설립된 (주)세무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700,000이고, 법인세율은 20%이다.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x1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100,000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x2년에 처분한다.
◯ 20x1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100,000이다.
◯ 20x1년 정기예금(만기 20x2년)에서 발생한 이자 ₩20,000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20x2년 법인세율은 18%로 예상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① ₩158,000
② ₩161,600
③ ₩176,000
④ ₩179,600
⑤ ₩190,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당기법인세와 일시적 차이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700,000원이다. 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원은 미래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이고, 한도초과 접대비 100,000원은 영구적 차이이다. 미수이자 20,000원은 회계상 먼저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상 수입 시 과세되므로 과세할 일시적 차이이다. 당기법인세에는 20%,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에는 소멸 예상 시점인 20x2년의 세율 18%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과세소득=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비용
금융자산평가손실은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수이자는 당기에 세법상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을 조정한다. 이후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소멸할 때의 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은 700,000원 + 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원 + 한도초과 접대비 100,000원 - 미수이자 20,000원 = 880,000원이다.
2. 당기법인세비용은 880,000원 × 20% = 176,000원이다.
3. 금융자산평가손실에서 이연법인세자산 18,000원(100,000원 × 18%)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비용이 18,000원 감소한다.
4. 미수이자에서 이연법인세부채 3,600원(20,000원 × 18%)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비용이 3,600원 증가한다. 한도초과 접대비는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5. 법인세비용은 176,000원 - 18,000원 + 3,600원 = 161,6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58,000원은 당기법인세 176,000원에서 이연법인세자산 18,000원만 차감하고 미수이자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3,6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161,600원이다.
② O — 당기법인세 176,000원에 순이연법인세효과 -14,400원(-18,000원 + 3,600원)을 반영하면 161,600원이다.
③ X — 176,000원은 과세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만 계산하고 이연법인세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161,600원이다.
④ X — 179,600원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부채 3,600원만 더하고 이연법인세자산 18,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161,600원이다.
⑤ X — 190,400원은 순이연법인세효과 14,400원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잘못 반영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당기법인세 176,000원에서 14,400원을 차감하여 161,600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당기 과세소득 계산과 이연법인세 계산을 섞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한도초과 접대비는 과세소득에는 가산하지만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반면 금융자산평가손실과 미수이자는 일시적 차이이므로 20x2년 예상세율 18%로 이연법인세효과를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과 당기법인세를 계산한 다음, 각 조정사항을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구분한다. 일시적 차이에 소멸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용 감소,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용 증가로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영구적 차이는 당기세금만 바꾸고, 일시적 차이는 이연세금도 만든다.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는 법인세비용 감소, 이연법인세부채 증가는 법인세비용 증가이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20x1년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3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의무는 사라진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제품 1단위당 ₩200의 제품보증비가 발생하며, 판매량의 5%에 대하여 품질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x3년 말 현재 20x1년에 판매한 제품 중 4%만 실제 제품보증활동을 수행하였다. 20x1년부터 20x3년까지의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고 할 때, 20x3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연도	판매량(대)	보증비용 지출액
20×1년	3,000	₩20,000
20×2년	4,000	30,000
20×3년	6,000	40,000

① ₩10,000

② ₩14,000

③ ₩20,000

④ ₩34,000

⑤ ₩4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제품보증충당부채의 당기 설정액과 실제 현금지출액을 누적하여 기말 잔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1단위당 보증비용은 ₩200이고, 판매량의 5%에 대해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판매량은 20×1년 3,000대, 20×2년 4,000대, 20×3년 6,000대이다.
보증비용 현금지출액은 각 연도 ₩20,000, ₩30,000, ₩40,000으로 합계 ₩90,000이다.
20×1년 판매분은 20×3년 말까지 4%에 대해서만 보증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추정 5% 중 남은 1%에 대한 의무는 아직 충당부채에 포함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도별 제품보증비 설정액은 $E = Q \times r \times c$이다. 여기서 Q는 판매량, r은 예상 보증요청률, c는 단위당 보증비용이다.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기초 충당부채에 당기까지의 누적 설정액을 더하고 누적 현금지출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제품 판매와 함께 예상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보증활동에 지출한 금액만큼 그 부채가 감소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판매 1대당 기대보증비는 ₩200 × 5% = ₩10이다.
2. 연도별 설정액은 20×1년 3,000대 × ₩10 = ₩30,000, 20×2년 4,000대 × ₩10 = ₩40,000, 20×3년 6,000대 × ₩10 = ₩60,000이다. 따라서 누적 설정액은 ₩130,000이다.
3. 누적 현금지출액은 ₩20,000 + ₩30,000 + ₩40,000 = ₩90,000이다.
4. 20×3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30,000 - ₩90,000 = ₩4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은 누적 설정액 ₩130,000에서 누적 현금지출액 ₩90,000을 차감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0,000은 올바르게는 ₩40,000이다.
② X — ₩14,000은 제품보증충당부채의 누적 증감 계산 결과가 아니다. 틀린 금액 ₩14,000은 올바르게는 ₩40,000이다.
③ X — ₩20,000은 20×3년분 설정액 ₩60,000에서 그해 현금지출액 ₩40,000만 차감할 때 나오는 값으로, 20×1년과 20×2년의 누적 잔액을 누락한다. 틀린 금액 ₩20,000은 올바르게는 ₩40,000이다.
④ X — ₩34,000은 계산된 잔액 ₩40,000에서 20×1년 판매분의 미이행 예상액 ₩6,000을 다시 빼는 경우 나오는 값이다. 20×1년 판매분은 예상 5% 중 4%만 실제 보증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남은 1%인 3,000대 × 1% × ₩200 = ₩6,000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34,000은 올바르게는 ₩40,000이다.
⑤ O — 누적 설정액 ₩130,000에서 누적 현금지출액 ₩90,000을 차감하면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40,000이다.

오답 포인트

20×3년의 설정액과 지출액만 비교하면 ③의 ₩20,000을 고르게 된다. 또한 20×1년 판매분의 실제 보증활동 4%를 보고 남은 1%의 예상 의무 ₩6,000을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면 ④의 ₩34,000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3개 연도의 설정액과 지출액을 모두 누적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예상 보증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량에 예상 보증요청률과 단위당 비용을 곱해 연도별 설정액을 구한 뒤, 기초잔액과 누적 설정액을 더하고 실제 보증지출액만 차감한다. 보증기간이 지나 의무가 실제로 소멸했다는 조건이 없는 한 미이행 예상액을 임의로 환입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제품보증충당부채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예상 보증비 설정액 - 실제 보증지출액이다.

NoteBase

문 22. (주)세무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이다.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해 가중평균한 유통보통주식수와 잠재적보통주식수의 합계는? (단, 주식수는 월수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월 1일 유상증자로 보통주 3,000주 발행(신주 발행금액은 주당 ₩400으로 유상증자일 직전 종가 ₩600보다 현저히 낮았음)
◯ 9월 1일 자기주식 300주 취득
◯ 10월 1일 옵션 600개 발행(옵션 1개당 1주의 보통주 발행, 행사가격은 1주당 ₩300, 보통주 1주의 평균주가는 ₩500)
◯ 12월 31일 전년도 발행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 액면금액 ₩10,000당 1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는 전환되지 않았음

① 10,150주
② 10,260주
③ 10,310주
④ 10,460주
⑤ 10,850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저가 유상증자에 포함된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고, 옵션과 전환사채에서 생기는 잠재적보통주식수를 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0주이다. 4월 1일에 주당 ₩400으로 3,000주를 발행했으며, 직전 종가는 주당 ₩600이다. 9월 1일에는 자기주식 300주를 취득했다. 10월 1일 발행한 옵션은 600개이고 행사가격은 주당 ₩300, 평균주가는 주당 ₩500이다. 전환사채의 잠재적보통주식수는 액면금액 ₩500,000을 주식 1주당 전환액 ₩10,000으로 나눈 50주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저가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조정비율=유상증자 직전 주가이론적 권리락 주가
옵션의 증분주식수는 자기주식법에 따라 계산한다.
증분주식수=옵션 수×≤ft(1-행사가격평균주가)
저가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것과 같은 요소가 있으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소급 조정한다. 옵션은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수에서 그 행사대금으로 평균주가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주식수를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8,000 \times 600 + 3,000 \times 400\} \div 11,000 = 545.45$원이므로 조정비율은 $600 \div 545.45 = 1.1$이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8,000 \times 1.1 \times 3/12 + 11,000 \times 5/12 + 10,700 \times 4/12 = 10,350$주이다.
3. 옵션의 증분주식수는 $600 \times (1 - 300/500) = 240$주이고, 10월 1일부터의 기간을 가중하면 $240 \times 3/12 = 60$주이다.
4. 전환사채의 잠재적보통주식수는 $500,000 \div 10,000 = 50$주이다. 전년도에 발행되어 연초부터 존재하므로 50주 전부를 반영한다.
5. 합계는 $10,350 + 60 + 50 = 10,460$주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150주는 저가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며, 옵션과 전환사채의 잠재적보통주식수도 빠진 값이다. 올바른 합계는 10,460주이다.
② X — 10,260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10,150주에 옵션 60주와 전환사채 50주만 더한 값이다. 유상증자 전 주식수에 조정비율 1.1을 적용해야 하므로 올바른 합계는 10,460주이다.
③ X — 10,310주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잠재적보통주식수를 정확히 합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조정된 유통보통주식수 10,350주에 옵션 60주와 전환사채 50주를 더한 10,460주이다.
④ O —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350주와 잠재적보통주식수 110주의 합계가 10,460주이므로 옳다.
⑤ X — 10,850주는 옵션 및 전환사채의 증분주식수와 기간가중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옵션은 600주 전부가 아니라 자기주식법상 증분 240주를 3개월만 반영한 60주이고, 전환사채는 50주이므로 올바른 합계는 10,460주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유상증자 후 단순히 3,000주만 늘리는 것이다. 발행가액 ₩400이 직전 주가 ₩600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해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1.1배로 소급 조정해야 한다. 또한 옵션 600주를 전부 더하지 않고 자기주식법으로 증분주식수만 구한 뒤 3개월을 가중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희석주당이익의 분모는 먼저 보통주 변동별 기간가중을 계산하고, 저가 유상증자이면 무상증자 요소를 소급 조정한 다음, 옵션은 자기주식법상 증분주식수만 기간가중하며, 전환증권은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를 더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저가 유상증자는 과거 주식수 소급 조정, 옵션은 자기주식법상 순증가분, 전환사채는 전환주식수를 반영한다.

NoteBase

문 23.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9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720,000이다. 20x1년 동안 당기근무원가는 ₩120,000이다. 20x1년 9월 1일 퇴직한 종업원에게 ₩90,000의 퇴직급여가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20x1년 10월 1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60,000을 납부하였다.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0%이고, 이자원가 및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① ₩240,000

② ₩256,500

③ ₩258,000

④ ₩316,500

⑤ ₩31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각각 기말 금액으로 굴린 뒤, 기말 확정급여채무에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퇴직급여 지급일과 기여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을 월할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900,000원, 기초 사외적립자산은 720,000원, 당기근무원가는 120,000원이다. 9월 1일 퇴직급여 90,000원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고, 10월 1일 기여금 60,000원이 납부되었다. 연 이자율은 10%이며 월할계산한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감소시키고, 기여금은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킨다.

사용할 공식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초 확정급여채무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퇴직급여 지급액
기말 사외적립자산 = 기초 사외적립자산 + 이자수익 + 기여금 - 퇴직급여 지급액
기말 순확정급여부채 =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말 사외적립자산

지급액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채무와 자산에서 빠져 있으므로 그 기간의 이자를 차감한다.
기여금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운용되므로 그 기간의 이자수익을 가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이자원가는 $900,000 \times 10\% - 90,000 \times 10\% \times \frac{4}{12} = 87,000$원이다.
2.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900,000 + 120,000 + 87,000 - 90,000 = 1,017,000$원이다.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720,000 \times 10\% - 90,000 \times 10\% \times \frac{4}{12} + 60,000 \times 10\% \times \frac{3}{12} = 70,500$원이다.
4.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720,000 + 70,500 + 60,000 - 90,000 = 760,500$원이다.
5.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1,017,000 - 760,500 = 256,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40,000원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180,000원에 당기근무원가 120,000원을 더하고 기여금 60,000원을 뺀 뒤 이자효과를 전부 누락한 값이다. 이자를 월할계산하면 올바른 금액은 256,500원이다.
② O — 채무 1,017,000원에서 사외적립자산 760,500원을 차감하면 256,500원이 된다.
③ X — 258,000원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180,000원에 연 10%의 순이자 18,000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10월 1일 납부한 기여금의 3개월분 이자수익 1,5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이를 차감하면 올바른 금액은 256,500원이다.
④ X — 316,500원은 기말 사외적립자산에 기여금 원금 60,000원을 더하지 않아 순확정급여부채를 그만큼 크게 계산한 값이다. 기여금 원금을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256,500원이다.
⑤ X — 318,000원은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180,000원에 순이자 18,000원과 당기근무원가 120,000원만 더하여 기여금 원금 60,000원과 그 3개월분 이자수익 1,500원의 효과를 모두 누락한 값이다. 두 효과를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256,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퇴직급여 지급액 90,000원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므로 순액 계산에서는 원금 효과가 상쇄된다. 반면 10월 1일 납부한 기여금은 사외적립자산을 60,000원 증가시킬 뿐 아니라 3개월분 이자수익 1,500원도 발생시킨다. 이 이자수익을 빠뜨리면 ③의 258,000원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항목을 각각 배치하고, 중도 지급·납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이 기말까지 존재하지 않은 기간 또는 존재한 기간만큼 이자를 월할계산한다. 마지막에 기말 채무에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급여 지급은 채무와 자산을 함께 감소시키고, 기여금은 자산만 증가시킨다. 중도 거래의 이자는 거래일부터 기말까지 월할계산한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20x1년 초 (주)대한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50,000)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말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20x2년도 공사이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	₩432,000	₩580,000	₩740,000
추정총계약원가	720,000	725,000	740,000
계약대금청구금액	390,000	310,000	150,000
계약대금수령금액	450,000	200,000	200,000

① 20x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0 /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

② 20x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0,000 /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

③ 20x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0,000 /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

④ 20x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120,000 /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

⑤ 20x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120,000 /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진행률로 누적 공사수익을 계산한 뒤 누적 청구액과 비교하여 미청구공사를 구하고, 당기 공사이익은 당기 공사수익에서 당기 발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계약금액은 850,000원이다.
20x1년 누적발생계약원가는 432,000원, 추정총계약원가는 720,000원, 당기 청구액은 390,000원이다.
20x2년 누적발생계약원가는 580,000원, 추정총계약원가는 72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 말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와 20x2년도 공사이익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 ÷ 추정총계약원가이다.
누적 공사수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이다.
미청구공사는 누적 공사수익-누적 청구액이 양수인 금액이고, 초과청구공사는 그 차이가 음수일 때의 절댓값이다.
당기 공사이익은 당기 공사수익-당기 발생계약원가이다.
진행기준에서는 이행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인식하므로 누적 공사수익을 구한 뒤 청구액 및 누적 원가와 비교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진행률은 432,000 ÷ 720,000 = 60%이다.
2. 20x1년 누적 공사수익은 850,000 × 60% = 510,000원이다. 누적 청구액은 390,000원이므로 미청구공사는 510,000 − 390,000 = 120,000원이다.
3. 20x1년 누적 공사이익은 510,000 − 432,000 = 78,000원이다.
4. 20x2년 진행률은 580,000 ÷ 725,000 = 80%이고, 20x2년 말 누적 공사수익은 850,000 × 80% = 680,000원이다.
5. 20x2년 말 누적 공사이익은 680,000 − 580,000 = 100,000원이므로, 20x2년도 공사이익은 100,000 − 78,000 = 22,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초과청구공사 0원'과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1년 말 미청구공사 120,000원,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원이다. 78,000원은 20x1년 공사이익이다.
② X —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원은 맞지만 '초과청구공사 20,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누적 공사수익 510,000원이 누적 청구액 390,000원보다 120,000원 많으므로 미청구공사 120,000원이다.
③ X — '초과청구공사 20,000원'과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미청구공사 120,000원과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원이다.
④ O — 20x1년 말 미청구공사는 120,000원이고 20x2년도 공사이익은 22,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20x1년 말 미청구공사 120,000원은 맞지만 '20x2년도 공사이익 78,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2년도 공사이익 22,000원이며, 78,000원은 20x1년 공사이익이다.

오답 포인트

20x1년 누적 공사수익 510,000원을 당기 청구액 390,000원이 아니라 현금수령액 450,000원과 비교하면 안 된다. 미청구·초과청구의 판단 기준은 수령액이 아니라 누적 청구액이다. 또한 78,000원은 20x1년 공사이익이므로 이를 20x2년도 이익으로 옮겨 쓰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도별 진행률과 누적 공사수익을 계산한다. 미청구·초과청구는 누적 공사수익과 누적 청구액을 비교하고, 당기 이익은 당기 말 누적이익에서 전기 말 누적이익을 차감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익과 청구액의 차이는 미청구·초과청구, 누적이익의 연도 간 차이는 당기이익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주)대한을 현금 ₩1,200,000에 흡수합병하였다.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장부금액 ₩430,000, 공정가치 ₩410,000, 순공정가치 ₩400,000)은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다. 취득일 현재 건물을 제외한 (주)대한의 자산, 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 합병 시 (주)세무가 인식할 영업권은?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100,000	₩100,000
매출채권	100,000	100,000
제품	200,000	240,000
투자부동산	320,000	250,000
토지	200,000	300,000
매입채무	50,000	50,000
사채	170,000	170,000

① ₩0

② ₩20,000

③ ₩30,000

④ ₩70,000

⑤ ₩1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취득대가와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 순자산의 측정액을 비교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건물은 공정가치 410,000원이 아니라 순공정가치 400,000원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취득대가: 1,200,000원
건물 외 식별가능 자산의 공정가치: 현금 100,000원, 매출채권 100,000원, 제품 240,000원, 투자부동산 250,000원, 토지 300,000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인 건물의 측정액: 순공정가치 400,000원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 매입채무 50,000원, 사채 170,0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공식은 $G = C - N$이다. 여기서 G는 영업권, C는 취득대가, N은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 순자산의 측정액이다. 취득기업은 피취득기업의 식별가능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기준 측정액으로 인식하므로 장부금액이 아니라 제시된 공정가치 등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건물 외 식별가능 자산은 100,000원 + 100,000원 + 24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990,000원이다.
2. 건물 400,000원을 더하면 식별가능 자산은 1,390,000원이다.
3. 부채는 50,000원 + 170,000원 = 220,000원이므로 식별가능 순자산은 1,390,000원 - 220,000원 = 1,170,000원이다.
4. 영업권은 1,200,000원 - 1,170,000원 = 3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0원은 건물을 장부금액 430,000원으로 잘못 반영할 때 나오는 값이다. 건물은 순공정가치 400,000원으로 반영하므로 영업권은 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② X — 20,000원은 건물을 공정가치 410,000원으로 반영할 때 나오는 값이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인 건물은 순공정가치 400,000원으로 반영하므로 영업권은 2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③ O — 취득대가 1,200,000원에서 식별가능 순자산 1,17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권은 30,000원이다.
④ X — 70,000원은 제품을 공정가치 240,000원이 아닌 장부금액 200,000원으로 잘못 반영하여 순자산을 40,000원 적게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제품은 공정가치로 반영하므로 영업권은 7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⑤ X — 100,000원은 토지의 공정가치 증가액 300,000원 - 200,000원일 뿐 영업권이 아니다. 모든 식별가능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영업권은 10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건물의 장부금액 430,000원, 공정가치 410,000원, 순공정가치 400,000원 중 어느 금액을 사용할지가 핵심 함정이다. 또한 제품·투자부동산·토지도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업결합 영업권 문제는 취득대가를 확인한 뒤, 자산별 취득일 측정액을 합산하고, 인수한 부채를 차감하여 식별가능 순자산을 구한 다음, 취득대가에서 그 순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별도로 제시된 순공정가치를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영업권 = 취득대가 - 식별가능 순자산이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로 반영한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세무의 20x1년 당기제조착수량은 100단위, 기말재공품은 4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25%)이며, 당기투입원가는 직접재료원가 ₩40,000, 전환원가(conversion cost) ₩70,000이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때,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기초재공품, 공손 및 감손은 없다.)

① ₩10,000

② ₩16,000

③ ₩26,000

④ ₩28,000

⑤ ₩56,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각각 계산하여 기말재공품에 배부할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제조착수량은 100단위이고 기말재공품은 40단위이므로 완성품은 60단위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의 재료원가 완성도는 100%이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25%이다. 기초재공품이 없으므로 당기투입원가만으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완성품환산량은 실제 생산량에 원가요소별 완성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원가요소별 당기투입원가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기말재공품원가=기말재공품 재료원가+기말재공품 전환원가
직접재료와 전환원가는 투입 시점이 달라 완성도가 서로 다르므로 두 원가요소를 분리해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완성품 수량은 100단위 - 40단위 = 60단위이다.
2.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은 60단위 + 40단위 × 100% = 100단위이고, 재료원가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40,000원 ÷ 100단위 = 4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 재료원가는 40단위 × 400원 = 16,000원이다.
3.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60단위 + 40단위 × 25% = 70단위이고, 전환원가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70,000원 ÷ 70단위 = 1,0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 전환원가는 40단위 × 25% × 1,000원 = 10,000원이다.
4. 기말재공품원가는 16,000원 + 10,000원 = 2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원은 기말재공품에 배부된 전환원가만 계산한 금액이다. 직접재료원가 16,000원을 더한 26,000원이 기말재공품의 총원가이다.
② X — 16,000원은 기말재공품에 배부된 직접재료원가만 계산한 금액이다. 전환원가 10,000원을 더한 26,000원이 옳다.
③ O — 기말재공품 재료원가 16,000원과 전환원가 10,000원의 합계가 26,000원이므로 옳다.
④ X — 28,000원은 전환원가 70,000원을 착수량 100단위로 나눈 뒤 기말재공품 40단위에 곱한 금액으로, 전환원가 완성도 25%와 직접재료원가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으로 계산한 총원가는 26,000원이다.
⑤ X — 56,000원은 기말재공품 40단위를 재료와 전환원가 모두 100% 완성된 것으로 보아 40단위 × (400원 + 1,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전환원가에는 완성도 25%만 적용해야 하므로 총원가는 26,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기말재공품원가의 한 구성요소만 고른 경우이다. ⑤는 직접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는 조건을 전환원가에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직접재료 완성도 100%와 전환원가 완성도 25%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계산 문제에서는 먼저 완성품 수량을 구한 뒤, 직접재료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각각 계산하고, 각 원가요소의 단위당 원가를 기말재공품 환산량에 곱하여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재료는 기말재공품도 재료 기준 100% 완성이고, 균등 발생하는 전환원가는 제시된 완성도만큼만 반영한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20x1년 연간 최대생산량이 8,000단위인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세무는 당기에 제품 7,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5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이다. (주)세무는 거래처로부터 제품 2,000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주문을 받았으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변화가 없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예상 판매량 중 1,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때, 특별주문 제품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① ₩500

② ₩600

③ ₩800

④ ₩900

⑤ ₩1,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별주문을 수락할 때 증분변동원가와 포기한 정상판매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대생산량은 8,000단위이고 정상 예상판매량은 7,00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000단위이다. 특별주문량 2,000단위 중 1,00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생산하지만, 나머지 1,000단위를 생산하려면 정상판매 1,0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특별주문 1단위의 변동원가는 변동제조원가 ₩500과 변동판매관리비 ₩100을 합한 ₩600이다. 정상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1,000에서 변동원가 ₩600을 뺀 ₩400이다.

사용할 공식

특별주문 총관련원가는 다음과 같다.
총관련원가=특별주문 증분변동원가+포기한 정상판매의 공헌이익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총관련원가를 특별주문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특별주문이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정상판매를 일부 포기하게 되므로 변동원가뿐 아니라 포기한 공헌이익도 기회비용으로 포함한다.

계산 과정

1. 특별주문 증분변동원가: ₩600 × 2,000단위 = ₩1,200,000이다.
2. 포기한 정상판매의 공헌이익: (₩1,000 - ₩500 - ₩100) × 1,000단위 = ₩400,000이다.
3. 특별주문 총관련원가: ₩1,200,000 + ₩400,000 = ₩1,600,000이다.
4. 단위당 최저판매가격: ₩1,600,000 ÷ 2,000단위 = ₩8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00은 변동제조원가만 반영한 금액으로, 변동판매관리비와 정상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누락하였다. 올바른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800이다.
② X — ₩600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만 합한 금액으로, 정상판매 1,000단위의 포기 공헌이익 ₩400,000을 누락하였다. 올바른 금액은 ₩800이다.
③ O — 총관련원가 ₩1,600,000을 특별주문량 2,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800이므로 옳다.
④ X — ₩900은 계산된 단위당 관련원가보다 ₩100 높다. 최소한 받아야 할 가격은 이익을 추가한 가격이 아니라 관련원가와 같아지는 ₩800이다.
⑤ X — ₩1,000은 정상판매가격일 뿐 특별주문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이 아니다. 관련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바른 금액은 ₩800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600처럼 특별주문의 변동원가만 계산하면 정상판매를 포기하면서 잃는 공헌이익을 빠뜨리게 된다. 반대로 정상판매가격 ₩1,000을 그대로 최저가격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최저가격은 정상가격이 아니라 특별주문 때문에 증가하거나 포기되는 관련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휴생산능력과 특별주문량을 비교한다. 특별주문이 유휴생산능력 이내이면 증분변동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정상판매를 포기하면 포기한 정상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더한 뒤 특별주문량으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최저가격은 증분원가에 기회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유휴능력을 넘어서 정상판매가 줄면 포기 공헌이익을 반드시 포함한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40,000이고, 예정 기계시간은 2,000시간이다. 20x1년 실제 기계시간은 2,100시간,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은 ₩3,000이다. 20x1년 (주)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① ₩39,000

② ₩40,000

③ ₩41,000

④ ₩42,000

⑤ ₩4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예정배부율로 실제 조업도에 배부한 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과대배부액의 의미를 이용해 실제발생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조간접원가 예산: ₩40,000
예정 기계시간: 2,000시간
실제 기계시간: 2,100시간
과대배부액: ₩3,000
구해야 할 값: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주의할 조건: 과대배부는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큰 상태이다.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율=제조간접원가 예산예정 기계시간
배부액=예정배부율×실제 기계시간
과대배부액=배부액-실제발생액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아니라 예정배부율을 실제 배부기준량에 곱해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율은 $\frac{40,000}{2,000}$ = 20원/기계시간이다.
2.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20 × 2,100 = 42,000원이므로 ₩42,000이다.
3. 과대배부액 ₩3,000은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3,000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발생액은 42,000 − 3,000 = 39,000원이므로 ₩39,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39,000은 계산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일치한다.
② X — ₩40,000은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일 뿐 실제발생액이 아니다. 올바른 실제발생액은 ₩39,000이다.
③ X — ₩41,000은 배부액 ₩42,000에서 과대배부액 ₩3,000을 정확히 차감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실제발생액은 ₩39,000이다.
④ X — ₩42,000은 예정배부율에 실제 기계시간을 곱한 배부액이지 실제발생액이 아니다. 올바른 실제발생액은 ₩39,000이다.
⑤ X — ₩45,000은 배부액에 과대배부액을 더한 값이다. 과대배부에서는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므로 ₩3,000을 빼야 하며, 올바른 실제발생액은 ₩39,0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과대배부'를 실제발생액이 더 큰 경우로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과대배부는 배부액이 실제발생액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발생액을 구할 때 배부액에서 과대배부액을 차감한다. 또한 예산 ₩40,000과 실제 조업도에 따른 배부액 ₩42,000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산과 예정 조업도로 예정배부율을 구하고, 여기에 실제 조업도를 곱해 배부액을 계산한다. 그다음 과대배부이면 실제발생액이 배부액보다 작고, 과소배부이면 실제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다는 관계로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과대배부: 배부액 > 실제발생액, 실제발생액 = 배부액 - 과대배부액.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20x1년에 제품A 1,500단위, 제품B 2,000단위, 제품C 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제조간접원가는 작업준비 ₩100,000, 절삭작업 ₩600,000, 품질검사 ₩90,000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제품B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활동	원가동인	제품A	제품B	제품C
작업준비	작업준비횟수	30	50	20
절삭작업	절삭작업시간	1,000	1,200	800
품질검사	검사시간	50	60	40

① ₩43

② ₩120

③ ₩163

④ ₩255

⑤ ₩39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동별 제조간접원가를 각 원가동인의 소비량에 따라 제품B에 배부한 뒤, 제품B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전체 원가동인 수량은 작업준비횟수 100회(30+50+20), 절삭작업시간 3,000시간(1,000+1,200+800), 검사시간 150시간(50+60+40)이다.
제품B는 작업준비 50회, 절삭작업 1,200시간, 품질검사 60시간을 소비하며 생산량은 2,000단위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활동별 배부율을 각각 구하여 제품B가 실제로 소비한 원가동인 수량에 적용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활동별 배부율은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 전체 원가동인 수량이다.
제품B의 활동별 배부액은 활동별 배부율 × 제품B의 원가동인 소비량이다.
제품B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제품B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 합계 ÷ 제품B 생산량이다.
활동마다 원가동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배부기준으로 합산하지 않고 활동별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작업준비 배부율은 100,000원 ÷ 100회 = 회당 1,000원이고, 제품B 배부액은 1,000원 × 50회 = 50,000원이다.
2. 절삭작업 배부율은 600,000원 ÷ 3,000시간 = 시간당 200원이고, 제품B 배부액은 200원 × 1,200시간 = 240,000원이다.
3. 품질검사 배부율은 90,000원 ÷ 150시간 = 시간당 600원이고, 제품B 배부액은 600원 × 60시간 = 36,000원이다.
4. 제품B의 제조간접원가 합계는 50,000원 + 240,000원 + 36,000원 = 326,000원이다.
5. 제품B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326,000원 ÷ 2,000단위 = ₩163이다.

선지 판단

① X — ₩43은 작업준비와 품질검사 배부액만 합한 86,000원을 제품B의 2,000단위로 나눈 값으로, 절삭작업 배부액 240,000원을 누락한 결과이다. 틀린 값 ₩43은 올바르게는 ₩163이다.
② X — ₩120은 절삭작업 배부액 240,000원만 제품B의 2,000단위로 나눈 값으로, 작업준비와 품질검사 배부액을 누락한 결과이다. 틀린 값 ₩120은 올바르게는 ₩163이다.
③ O — 제품B에 배부된 세 활동의 원가 326,000원을 생산량 2,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163이다.
④ X — ₩255는 제품C의 활동별 배부액 204,000원을 제품C 생산량 800단위로 나눈 단위당 제조간접원가이다. 제품B의 단위당 원가로 제시한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163이다.
⑤ X — ₩395는 전체 제조간접원가 790,000원을 제품B 생산량 2,000단위로 나눈 값으로, 다른 제품에 배부될 원가까지 제품B 원가에 포함한 결과이다. 틀린 값 ₩395는 올바르게는 ₩163이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163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일부 활동의 원가만 반영하거나 전체 제조간접원가를 곧바로 제품B 생산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작업준비·절삭작업·품질검사를 각각의 원가동인으로 먼저 배부하고, 제품B에 배부된 금액만 합산해야 한다. 또한 제품C의 계산 결과인 ₩255를 제품B의 결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동별로 전체 원가동인 수량을 합산하고,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 다음, 해당 제품의 원가동인 소비량을 곱한다. 그 배부액들을 모두 합한 뒤 해당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활동별 배부율 × 해당 제품의 활동량을 모두 합산한 뒤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간접원가가 된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하고 있다. 기초재공품은 없으며, 제품이 모두 기말에 완성되었다. (주)세무의 20x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A와 제품B의 제조원가는?

	제품A	제품B
직접재료원가		
기초재고액	₩20,000	₩10,000
당기매입액	40,000	30,000
기말재고액	10,000	15,000
직접노무원가		
전기말 미지급액	₩22,000	₩30,000
당기지급액	45,000	60,000
당기말 미지급액	20,000	27,000
제조간접원가	₩30,000	

① 제품A: ₩94,900 제품B: ₩110,100

② 제품A: ₩99,100 제품B: ₩105,900

③ 제품A: ₩105,900 제품B: ₩94,900

④ 제품A: ₩105,900 제품B: ₩99,100

⑤ 제품A: ₩110,100 제품B: ₩94,9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료와 임금의 재고·미지급액 변동으로 실제 발생한 직접원가를 구한 뒤,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원가 비율로 배부하여 제품별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제품A의 재료는 기초재고액 20,000원, 당기매입액 40,000원, 기말재고액 10,000원이고, 제품B는 각각 10,000원, 30,000원, 15,000원이다.
제품A의 임금은 전기말 미지급액 22,000원, 당기지급액 45,000원, 당기말 미지급액 20,000원이고, 제품B는 각각 30,000원, 60,000원, 27,000원이다.
총 제조간접원가는 30,000원이며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기초재공품이 없고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및 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원가=기초재료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재료재고액
직접노무원가=당기지급액+당기말 미지급액-전기말 미지급액
제품별 제조간접원가=총 제조간접원가×제품별 직접노무원가총 직접노무원가
재료 사용액은 기초 보유분과 당기 매입분에서 기말 잔액을 빼고, 당기 노무원가는 현금 지급액에 미지급액의 증가분을 반영한다. 문제에서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을 배부기준으로 제시했으므로 마지막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는 제품A가 20,000원+40,000원-10,000원=50,000원, 제품B가 10,000원+30,000원-15,000원=25,000원이다.
2. 직접노무원가는 제품A가 45,000원+20,000원-22,000원=43,000원, 제품B가 60,000원+27,000원-30,000원=57,000원이다. 따라서 총 직접노무원가는 100,000원이다.
3. 제조간접원가는 제품A에 $30,000 \times 43,000/100,000 = 12,900$원, 제품B에 $30,000 \times 57,000/100,000 = 17,100$원이 배부된다.
4. 제품A의 제조원가는 50,000원+43,000원+12,900원=105,900원이고, 제품B의 제조원가는 25,000원+57,000원+17,100원=99,1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제품A 94,900원과 제품B 110,100원은 계산된 제조원가와 모두 다르다. 틀린 표현은 두 제품의 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제품A: ₩105,900, 제품B: ₩99,100'이다.
② X — 제품A 99,100원과 제품B 105,900원은 정확한 두 제조원가를 서로 바꾸어 적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제품A: ₩105,900, 제품B: ₩99,100'이다.
③ X — 제품A 105,900원은 맞지만 제품B 94,900원이 틀리다. 제품B는 직접재료원가 25,000원, 직접노무원가 57,000원,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7,100원의 합계이므로 올바르게는 99,100원이다.
④ O — 제품A의 제조원가는 105,900원이고 제품B의 제조원가는 99,1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제품A 110,100원과 제품B 94,900원은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제품A: ₩105,900, 제품B: ₩99,1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처럼 최종 금액을 제품별로 뒤바꾸거나, 미지급임금을 현금 지급액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임금 발생액은 당기지급액에 당기말 미지급액을 더하고 전기말 미지급액을 빼며, 제조간접원가는 이 발생액 43,000원과 57,000원의 비율로 배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료 사용액과 임금 발생액을 먼저 각각 계산하고, 문제에서 지정한 배부기준의 제품별 비율을 구한 다음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마지막에는 제품별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합산하고 두 제품 합계가 총 제조원가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료 사용액은 '기초+매입-기말', 미지급임금이 있는 노무원가는 '지급+기말미지급-기초미지급'이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000, 전환원가 ₩500이었다. 생산 공정에서 공손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된다.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정상공손수량은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10%이다. (주)세무의 생산활동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공손원가는?

◯ 기초재공품: 5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30%)
◯ 당기완성량: 1,800단위
◯ 당기착수량: 2,000단위
◯ 기말재공품: 4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70%)

① ₩440,000
② ₩495,000
③ ₩517,000
④ ₩675,000
⑤ ₩70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을 기준으로 정상공손수량을 구하고, 공손이 발견되는 검사시점의 완성도를 적용해 정상공손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투입수량은 기초재공품 500단위와 당기착수량 2,000단위를 합한 2,500단위이다.
당기완성품 1,800단위와 기말재공품 400단위를 제외하면 실제 공손수량은 300단위이다.
기말재공품은 전환원가 완성도 70%이므로 공정 50%의 검사시점을 이미 통과했다. 따라서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은 당기완성품 1,800단위와 기말재공품 400단위를 합한 2,200단위이다.

사용할 공식

정상공손수량=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 수량× 10\%
정상공손 단위당 원가=직접재료 단위당 원가+전환원가 단위당 원가×검사시점 완성도
정상공손은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10%로 주어졌고, 공손품은 공정 50%에서 발견되므로 이 두 공식을 사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공손품에도 100% 배부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정상공손수량은 2,200단위× 10\%=220단위이다.
2. 공손품 1단위의 원가는 2,000원+500원× 50\%=2,250원이다.
3. 정상공손원가는 220단위× 2,250원=49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40,000원은 정상공손 220단위에 직접재료원가 2,000원만 적용하여 검사시점까지 발생한 전환원가를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정상공손원가는 495,000원이다.
② O — 정상공손수량 220단위에 검사시점 기준 단위당 원가 2,250원을 곱하면 495,000원이 된다.
③ X — 517,000원은 전환원가 완성도에 검사시점 50%가 아니라 기말재공품 완성도 70%를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검사시점 완성도 50%를 적용하여 495,000원으로 계산한다.
④ X — 675,000원은 실제 공손수량 300단위 전부를 정상공손으로 보아 2,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정상공손 220단위만 계산하여 495,000원으로 한다.
⑤ X — 705,000원은 실제 공손수량 300단위 전부에 기말재공품 완성도 70%까지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정상공손 220단위와 검사시점 완성도 50%를 적용하여 495,000원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정상공손률 10%의 기준은 전체 투입량이나 실제 공손량이 아니라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 2,200단위이다. 또한 공손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기말재공품의 70%가 아니라 공손이 발견되는 검사시점의 50%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량흐름으로 실제 공손량을 확인하고,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 수량으로 정상공손량을 정한다. 그다음 직접재료의 투입시점과 공손 검사시점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각각 적용해 정상공손원가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공손수량은 검사 통과 합격품 기준, 정상공손원가는 재료 투입시점과 공손 검사시점 기준이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20x1년 원재료 X를 가공하여 연산품A와 연산품B를 생산하는데 ₩36,000의 결합원가가 발생하였다. 분리점 이후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각각 추가가공원가가 발생한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결합원가를 연산품에 배부할 때, 연산품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으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	생산량	최종 판매단가	최종판매가액	추가가공원가 (총액)
A	1,000리터	₩60	₩60,000	₩8,000
B	500리터	₩40	₩20,000	₩4,000
합계	1,500리터		₩80,000	₩12,000

① ₩4,000

② ₩8,000

③ ₩12,000

④ ₩18,000

⑤ ₩2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을 구한 뒤, 제품별 총원가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제품별 결합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종판매가액: A 60,000원, B 20,000원, 합계 80,000원
추가가공원가: A 8,000원, B 4,000원, 합계 12,000원
결합원가: 36,000원
구해야 할 값: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사용할 공식

전체 매출총이익률=총매출액-(결합원가+추가가공원가)총매출액
제품별 결합원가=제품별 매출액×(1-전체 매출총이익률)-제품별 추가가공원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각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전체 원가는 36,000원+12,000원=48,000원이다.
2. 전체 매출총이익은 80,000원-48,000원=32,000원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32,000/80,000 = 40\%$이다.
3. 따라서 B의 총원가는 매출액의 60%인 $20,000 \times (1 - 0.4) = 12,000$원이다.
4. B의 총원가에서 B의 추가가공원가 4,000원을 빼면 B의 결합원가는 8,000원이다.

검산하면 A의 결합원가는 $60,000 \times 0.6 - 8,000 = 28,000$원이고, A와 B의 결합원가 합계는 3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000원은 B의 추가가공원가일 뿐 결합원가 배부액이 아니다. 올바른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8,000원이다.
② O — B의 총원가 12,000원에서 추가가공원가 4,000원을 차감하면 결합원가 배부액은 8,000원이다.
③ X — 12,000원은 균등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B의 총원가이며, 여기에는 추가가공원가 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올바른 결합원가 배부액은 8,000원이다.
④ X — 18,000원은 B의 매출액 20,000원에 필요한 원가율 60%를 적용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B의 총원가는 12,000원이고 결합원가 배부액은 8,000원이다.
⑤ X — 28,000원은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이다.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B의 추가가공원가 4,000원을 곧바로 답으로 고르거나, B의 총원가 12,000원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28,000원은 A의 결합원가이므로 제품을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총이익률을 먼저 구하고, 각 제품의 매출액에 공통 원가율을 적용해 제품별 총원가를 계산한 뒤, 제품별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면 결합원가 배부액이 된다. 마지막에는 제품별 배부액의 합계가 주어진 결합원가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공통 이익률 적용 → 제품별 총원가 계산 → 추가가공원가 차감'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제조부문(금형, 조립)과 보조부문(유지, 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지부문원가는 기계시간, 동력부문원가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20x1년 원가자료와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부문공통원가 ₩200,000은 임차료이며, 이는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배부한다. 20x1년 (주)세무의 배부 후, 금형부문의 총원가는? (단, 보조부문원가는 유지부문, 동력부문의 순으로 배부한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유지	동력	금형	조립
부문개별원가	₩120,000	₩80,000	₩200,000	₩300,000
부문공통원가	₩200,000			
기계시간(시간)	–	200	400	400
전력량(kWh)	100	–	300	200
점유면적(m^2)	10	20	30	40

① ₩144,800

② ₩148,800

③ ₩204,800

④ ₩344,800

⑤ ₩404,8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부문공통원가를 점유면적으로 먼저 배부한 뒤, 유지부문과 동력부문의 순서로 단계배부하여 금형부문의 총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부문공통원가 200,000원은 점유면적 10:20:30:40으로 배부한다. 유지부문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동력·금형·조립에 배부하고, 그다음 동력부문원가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금형·조립에만 배부한다.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를 끝낸 유지부문으로 동력부문원가를 되돌려 배부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공통원가 배부액=공통원가×해당 부문 점유면적전체 점유면적
보조부문원가 배부액=배부할 보조부문 총원가×수혜 부문의 배부기준량배부대상 부문의 배부기준량 합계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순서대로 한 보조부문의 원가를 모두 배부한 후 그 부문을 닫는 방식이므로 이 공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전체 점유면적은 $10 + 20 + 30 + 40 = 100m^2$이다. 공통원가 배부액은 유지 20,000원, 동력 40,000원, 금형 60,000원, 조립 80,000원이다.
2. 공통원가 배부 후 원가는 유지 140,000원, 동력 120,000원, 금형 260,000원, 조립 380,000원이다.
3. 유지부문의 기계시간 합계는 $200 + 400 + 400 = 1{,}000$시간이다. 유지부문 140,000원 중 동력에는 $140{,}000 \times 200/1{,}000 = 28{,}000$원, 금형에는 $140{,}000 \times 400/1{,}000 = 56{,}000$원, 조립에는 56,000원을 배부한다.
4. 동력부문의 배부 전 총원가는 $120{,}000 + 28{,}000 = 148{,}000$원이다. 유지부문은 이미 닫혔으므로 금형과 조립의 전력량 $300 + 200 = 500kWh$만 분모에 포함한다. 금형 배부액은 $148{,}000 \times 300/500 = 88{,}800$원이다.
5. 금형부문의 총원가는 $260{,}000 + 56{,}000 + 88{,}800 = 404{,}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44,800원은 금형부문이 받은 유지부문원가 56,000원과 동력부문원가 88,800원만 합한 금액으로, 금형부문의 배부 전 원가 260,000원을 빠뜨렸다. 올바른 총원가는 404,800원이다.
② X — 148,800원은 단계배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동력부문의 배부 전 총원가는 148,000원이고, 그중 금형 배부액은 88,800원이므로 금형의 올바른 총원가는 404,800원이다.
③ X — 204,800원은 금형의 부문개별원가 200,000원을 누락하고 공통원가 배부액 60,000원과 보조부문 배부액 144,800원만 더한 금액이다. 올바른 총원가는 부문개별원가까지 포함한 404,800원이다.
④ X — 344,800원은 금형의 부문개별원가 200,000원과 보조부문 배부액 144,800원만 더하여 공통원가 배부액 6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총원가는 404,800원이다.
⑤ O — 금형의 공통원가 배부 후 원가 260,000원에 유지부문 배부액 56,000원과 동력부문 배부액 88,800원을 더하면 404,8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부문공통원가를 먼저 각 부문에 배부해야 한다는 점과, 동력부문 배부 시 이미 닫힌 유지부문의 전력량 $100kWh$를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금형이 받은 보조부문원가만 계산하고 금형의 기존 원가를 누락하면 ①을 고르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원가 배부 → 각 부문의 배부 전 총원가 확정 → 지정된 순서대로 보조부문 단계배부 → 제조부문의 기존 원가와 받은 배부액 합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뒤 순서의 보조부문을 배부할 때는 이미 닫힌 보조부문을 배부대상과 분모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단계배부법은 앞 부문부터 배부하고 닫으며, 닫힌 부문에는 원가를 되돌려 배부하지 않는다. 제조부문 총원가는 기존 원가와 모든 배부받은 원가의 합계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외부 판매대리점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20x1년도 손익계산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20x1년에 판매대리점에게 매출액의 18%를 판매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20x2년에는 판매대리점 대신 회사 내부판매원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내부판매원에게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고정급여 ₩8,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가 20x2년에 내부판매원을 통해 20x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달성해야 할 매출액은?

매출액	₩100,000
변동매출원가	₩45,000
고정매출원가	₩15,000
변동판매비와관리비(판매대리점 수수료)	₩18,000
고정판매비와관리비	₩4,000
영업이익	₩18,000

① ₩75,000

② ₩81,818

③ ₩90,000

④ ₩100,000

⑤ ₩112,5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매방식 변경 후의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를 반영하여 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변동매출원가율은 45%이고 판매대리점 수수료율은 18%이다. 20x2년에는 판매대리점 수수료율 18%가 없어지고 내부판매원 수수료율 15%가 적용되므로 변동비율은 60%, 공헌이익률은 40%이다.
20x2년 고정비는 고정매출원가 15,000원, 고정판매비와관리비 4,000원, 내부판매원 고정급여 8,000원을 합한 27,000원이다.
목표영업이익은 20x1년과 같은 18,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목표매출액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목표매출액=고정비+목표영업이익공헌이익률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2년 공헌이익률은 $1 - 45\% - 15\% = 40\%$이다.
2. 20x2년 고정비는 $15{,}000 + 4{,}000 + 8{,}000 = 27{,}000$원이다.
3. 목표매출액을 S라 하면 $0.40S - 27{,}000 = 18{,}000$이다.
4. 따라서 $S = (27{,}000 + 18{,}000)/0.40 = 112{,}500$원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 매출액 75,000원이면 영업이익은 $75{,}000 \times 0.40 - 27{,}000 = 3{,}000$원으로 목표 18,000원에 미달한다. 75,000원이 아니라 112,500원이어야 한다.
② X — 매출액 81,818원이면 영업이익은 약 $81{,}818 \times 0.40 - 27{,}000 = 5{,}727$원으로 목표에 미달한다. 81,818원이 아니라 112,500원이어야 한다.
③ X — 매출액 90,000원이면 영업이익은 $90{,}000 \times 0.40 - 27{,}000 = 9{,}000$원으로 목표에 미달한다. 90,000원이 아니라 112,500원이어야 한다.
④ X — 매출액 100,000원이면 영업이익은 $100{,}000 \times 0.40 - 27{,}000 = 13{,}000$원으로 20x1년 영업이익보다 5,000원 적다. 100,000원이 아니라 112,500원이어야 한다.
⑤ O — 매출액 112,500원이면 공헌이익은 45,000원이고, 여기서 고정비 27,000원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18,000원이 되어 목표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20x1년의 판매대리점 수수료 18%와 20x2년의 내부판매원 수수료 15%를 동시에 변동비에 포함하면 안 된다. 또한 새로 발생하는 내부판매원 고정급여 8,000원을 고정비에 더해야 한다. 20x2년의 핵심은 공헌이익률 40%와 총고정비 27,0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방식이 바뀌는 목표이익 문제에서는 먼저 변경 전후에 사라지는 원가와 새로 생기는 원가를 구분하고, 변경 후 공헌이익률과 총고정비만으로 목표매출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구한 매출액을 영업이익 식에 대입하여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매출액 = (고정비 + 목표영업이익) ÷ 공헌이익률이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제약자원인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제품A, 제품B, 제품C를 생산·판매한다.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9,000시간이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1,000단위(제품A), 3,000단위(제품B), 2,000단위(제품C)로 한정되어 있을 때, (주)세무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구분	제품A	제품B	제품C
단위당 판매가격	₩50	₩60	₩120
단위당 변동원가	₩20	₩36	₩60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① ₩181,250

② ₩192,000

③ ₩196,250

④ ₩200,000

⑤ ₩211,2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인 특수기계 1시간당 공헌이익을 계산하여 생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수요 한도 안에서 9,000시간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다.
제품 A: 단위당 공헌이익 30원, 기계시간 2시간, 최대수요 1,000단위
제품 B: 단위당 공헌이익 24원, 기계시간 1시간, 최대수요 3,000단위
제품 C: 단위당 공헌이익 60원, 기계시간 3시간, 최대수요 2,000단위
사용 가능한 특수기계 시간은 총 9,000시간이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
제약자원 1시간당 공헌이익=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특수기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 자체가 아니라 특수기계 1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별 특수기계 1시간당 공헌이익을 계산한다.
A: (50-20)/(2)=15원/시간
B: (60-36)/(1)=24원/시간
C: (120-60)/(3)=20원/시간
2. 생산 우선순위는 B → C → A이다.
3. 제품 B를 시장수요 3,000단위까지 생산하면 3,000시간을 사용하고 공헌이익은 72,000원이다.
4. 남은 6,000시간으로 제품 C를 시장수요 2,000단위까지 생산하면 6,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헌이익은 120,000원이다.
5. 따라서 최대공헌이익은 72,000원 + 120,000원 = 192,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81,250원은 시간당 공헌이익 순으로 배분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81,250원'은 '192,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제품 B와 제품 C에 각각 3,000시간과 6,000시간을 배분하면 최대공헌이익은 192,000원이다.
③ X — 196,250원은 수요 한도를 지키면서 9,000시간을 최적으로 배분한 결과가 아니다. '196,250원'은 '192,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200,000원은 최적 생산조합 B 3,000단위와 C 2,000단위에서 얻는 공헌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200,000원'은 '192,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211,250원은 이용 가능한 특수기계 시간과 시장수요 한도를 적용한 최대공헌이익이 아니다. '211,250원'은 '192,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단위당 공헌이익만 보면 제품 C가 60원으로 가장 크지만, 제약자원 1시간당 공헌이익은 제품 B가 24원으로 가장 크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이라도 시장수요를 초과하여 생산할 수 없으므로 B의 수요를 채운 뒤 C에 남은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이 하나인 제품조합 문제는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큰 순서대로 수요 한도까지 자원을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약자원이 있으면 '제품 1개당'이 아니라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3년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3년간 판매가격과 원가구조의 변동은 없다. 20x1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800,000이고, 고정원가가 ₩600,000일 때, 20x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20×1년	20×2년	20×3년
기초제품재고량(단위)	-	20,000	10,000
당기생산량(단위)	60,000	30,000	50,000
당기판매량(단위)	40,000	40,000	40,000
기말제품재고량(단위)	20,000	10,000	20,000

① ₩640,000

② ₩660,000

③ ₩680,000

④ ₩700,000

⑤ ₩72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에서 재고에 포함되어 이연되거나 판매 시 비용으로 풀려나는 고정제조원가를 연도별 생산량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20×2년·20×3년의 생산량은 각각 60,000단위, 30,000단위, 50,000단위이고, 판매량은 매년 40,000단위이다.
기말제품재고량은 각각 20,000단위, 10,000단위, 20,000단위이며, 20×3년 기초제품재고 10,000단위는 20×2년에 생산된 재고이다.
매년 고정원가는 600,000원이고,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도 t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f_t = F_t/Q_t$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에 기말재고로 이연된 고정제조원가를 더하고, 기초재고에서 당기에 비용화된 고정제조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원가가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재고가 되며, 그 재고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1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600,000원 ÷ 60,000단위 = 단위당 10원이다. 기초재고는 없고 기말재고가 20,000단위이므로 200,000원의 고정제조원가가 재고에 이연된다. 따라서 20×1년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8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이다.
2.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변하지 않고 판매량도 매년 40,000단위로 같으므로 20×3년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도 600,000원이다.
3. 20×2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600,000원 ÷ 30,000단위 = 단위당 20원이다. 따라서 20×3년 기초재고 10,000단위에 포함된 200,000원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모두 판매되어 당기 비용으로 풀린다.
4. 20×3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600,000원 ÷ 50,000단위 = 단위당 12원이다. 20×3년에는 기초재고 10,000단위와 당기생산분 30,000단위가 먼저 판매되므로, 기말재고 20,000단위는 모두 당기생산분이다. 이에 포함되어 이연되는 고정제조원가는 240,000원이다.
5. 20×3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60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64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20×3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640,000원과 일치한다.
② X — 660,000원은 기초재고에서 풀리는 200,000원과 기말재고에 이연되는 240,000원을 반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60,000원은 64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680,000원은 재고 고정제조원가의 순이연액 40,000원을 20×3년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600,000원에 더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80,000원은 64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700,000원은 20×3년 기초재고의 고정제조원가 200,000원이 당기 비용으로 풀린다는 점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틀린 금액 700,000원은 64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720,000원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서로 다른 연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무시한 금액이다. 특히 재고량 순증가 10,000단위에 20×3년 단위당 12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720,000원이 나오지만,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가 20×2년의 단위당 20원을 포함하므로 잘못이다. 틀린 금액 720,000원은 64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고수량이 10,000단위 늘었다는 사실만 보고 20×3년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12원을 곱하면 안 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 10,000단위에 포함된 20×2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이 먼저 비용화되고,
기말재고에는 20×3년의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12원이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준연도의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을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으로 환산한다. 그다음 목표 연도의
기초재고에서 풀리는 고정제조원가와 기말재고에 이연되는 고정제조원가를 생산연도별 단가로 각각 계산해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계산 이익 = 변동원가계산 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원가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생산연도별 고정제조원가 단가를 구분한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20x1년의 생산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30,000
실제총직접노무시간	8,000시간
당기제품생산량	3,600단위
제품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8,000(불리)

① ₩25,000(유리)

② ₩25,000(불리)

③ ₩50,000(유리)

④ ₩50,000(불리)

⑤ ₩75,000(불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에서 시간당 표준배부율을 역산한 뒤, 실제발생액과 실제시간 허용예산의 차이인 소비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변동제조간접원가: 130,000원
실제직접노무시간 AH: 8,000시간
당기제품생산량: 3,600단위
제품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8,000원(불리)
따라서 실제생산량 허용 표준시간은 $SH = 3,600 \times 2 = 7,200$시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SR \times (AH - SH)$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실제발생액-AH× SR
여기서 SR은 시간당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율이다. 능률차이와 실제·표준시간의 차이가 주어졌으므로 첫 번째 공식으로 SR을 구하고, 실제시간에 대한 표준허용액과 실제발생액을 비교한다.

계산 과정

1.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는 $8,000 - 7,200 = 800$시간이다.
2. 능률차이가 8,000원(불리)이므로 $8,000 = SR \times 800$이고, $SR = 10$원/시간이다.
3. 실제시간에 대한 표준허용 변동제조간접원가는 $8,000 \times 10 = 80,000$원이다.
4. 소비차이는 $130,000 - 80,000 = 50,000$원이다. 실제발생액이 표준허용액보다 크므로 50,000원(불리)이다.

선지 판단

① X — 소비차이는 25,000원(유리)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0,000원(불리)이다.
② X — 소비차이는 25,000원(불리)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0,000원(불리)이다.
③ X — 금액 50,000원은 맞지만 실제발생액 130,000원이 실제시간 기준 표준허용액 80,000원보다 크므로 유리가 아니라 불리이다. 올바르게는 50,000원(불리)이다.
④ O — $130,000 - 8,000 \times 10 = 50,000$원이면서 실제발생액이 더 크므로 50,000원(불리)이다.
⑤ X — 소비차이는 75,000원(불리)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실제시간 기준 표준허용액 80,000원을 차감한 50,000원(불리)이다.

오답 포인트

능률차이 8,000원(불리)을 소비차이에 다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를 평가하고, 소비차이는 실제발생액과 실제시간에 허용된 표준원가를 비교한다. 또한 ③처럼 차이의 절댓값만 구하고 유리·불리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생산량 허용 표준시간 SH를 구한다. 다음으로 능률차이 $SR \times (AH - SH)$에서 표준배부율 SR을 역산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발생액과 $AH \times SR$을 비교하며, 실제발생액이 더 크면 불리, 더 작으면 유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능률차이는 시간 차이, 소비차이는 실제발생액과 실제시간 허용예산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38.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도 2/4분기 판매량 예산이다. 월말 제품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 단위당 직접노무시간은 4월 3시간, 5월 3시간, 6월에는 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이 4월에 ₩50, 5월부터 매월 ₩5씩 상승한다고 할 때, 6월의 직접노무원가예산은? (단, 7월의 판매량 예산은 5,000단위이다.)

4월: 3,000단위 5월: 4,000단위 6월: 4,000단위

① ₩780,000

② ₩960,000

③ ₩984,000

④ ₩1,080,000

⑤ ₩1,2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품재고 정책을 반영해 6월 생산량을 구한 뒤, 단위당 직접노무시간과 6월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직접노무원가예산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6월 판매량은 4,000단위이고 7월 판매량은 5,000단위이다. 월말 제품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10%이며, 6월 제품 단위당 직접노무시간은 4시간이다. 시간당 임금은 4월 ₩50에서 매월 ₩5씩 상승하므로 6월에는 ₩60이다.

사용할 공식

생산량=판매량+기말제품재고-기초제품재고

직접노무원가예산=생산량×단위당 직접노무시간×시간당 임금

판매량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에 노무시간이 투입되므로 먼저 재고 증감을 반영한 생산량을 구한다.

계산 과정

1. 6월 기초제품재고는 5월 말 재고이므로 6월 판매량 4,000단위의 10%인 400단위이다.
2. 6월 기말제품재고는 7월 판매량 5,000단위의 10%인 500단위이다.
3. 6월 생산량은 4,000+500-400=4,100단위이다.
4. 6월 직접노무시간은 4,100단위×4시간=16,400시간이다.
5. 6월 시간당 임금은 ₩50+₩5×2=₩60이다.
6. 따라서 6월 직접노무원가예산은 16,400시간×₩60=₩984,0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780,000은 재고 정책을 반영한 6월 생산량 4,100단위, 단위당 4시간, 6월 시간당 임금 ₩60을 모두 적용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984,000이다.
② X — ₩960,000은 6월 판매량 4,000단위를 그대로 생산량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다. 기말재고 500단위와 기초재고 400단위의 차이 100단위를 생산량에 더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984,000이다.
③ O — 6월 생산량 4,100단위에 단위당 4시간과 시간당 ₩60을 곱하면 ₩984,000이 된다.
④ X — ₩1,080,000은 기말재고 500단위를 더하면서 기초재고 400단위를 차감하지 않아 생산량을 4,500단위로 계산한 금액이다. 기초재고까지 차감하면 올바른 금액은 ₩984,000이다.
⑤ X — ₩1,200,000은 7월 판매량 5,000단위를 6월 생산량으로 잘못 사용한 금액이다. 7월 판매량은 6월 기말재고 500단위를 구하는 데만 사용하며, 올바른 금액은 ₩984,000이다.

오답 포인트

6월 판매량 4,000단위를 곧바로 생산량으로 사용하면 ②의 ₩960,000이 나온다. 직접노무원가예산은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생산량 계산에서는 기말제품재고를 더하고 기초제품재고를 뺀다. 또한 6월 임금은 4월보다 두 차례 상승한 ₩60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노무원가예산은 기초·기말재고를 반영한 생산량을 먼저 구하고, 생산량에 단위당 직접노무시간과 해당 월의 시간당 임금을 차례로 곱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량은 판매량+기말재고-기초재고이고, 직접노무원가는 생산량×단위당 노무시간×시간당 임금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20x1년에 오토바이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오토바이 1대당 판매가격은 ₩200이며, 단위당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경찰청으로부터 순찰용 오토바이 100대를 1대당 ₩180에 공급해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순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는데 1대당 ₩10의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경찰청 로고 제작을 위해 디자인 스튜디오에 ₩1,200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주)세무의 생산능력은 최대생산능력에 근접해 있으므로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오토바이 10대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주)세무가 경찰청의 특별주문을 수락할 때, 증분이익은?

직접재료원가	₩86
직접노무원가	45
변동제조간접원가	9
고정제조간접원가	42
단위당 제조원가	₩182

① ₩0

② 증분이익 ₩800

③ 증분이익 ₩1,000

④ 증분이익 ₩1,200

⑤ 증분이익 ₩1,4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별주문의 증분수익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관련원가와 기존 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를 차감하여 증분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특별주문 수량은 100대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180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86, 직접노무원가 ₩45, 변동제조간접원가 ₩9의 합계인 ₩140이다.
특별주문에는 단위당 네비게이션 원가 ₩10과 일괄 디자인 원가 ₩1,200이 추가된다.
생산능력 제약으로 기존 판매 10대를 포기하므로, 기존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반영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42는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증분이익=증분수익-증분원가-기회원가
특별주문 수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비교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특별주문 증분수익은 ₩180 × 100대 = ₩18,000이다.
2. 특별주문의 변동제조원가는 ₩140 × 100대 = ₩14,000이다.
3. 추가 네비게이션 원가는 ₩10 × 100대 = ₩1,000이고, 디자인 원가는 ₩1,200이다.
4. 기존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 - ₩140 = ₩60이므로, 10대의 생산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는 ₩60 × 10대 = ₩600이다.
5. 따라서 증분이익은 ₩18,000 - ₩14,000 - ₩1,000 - ₩1,200 - ₩600 = ₩1,2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 증분이익은 ₩1,200이므로 '₩0'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증분이익 ₩1,200'이다.
② X — 증분수익에서 변동제조원가, 추가원가 및 기회원가를 모두 차감하면 ₩800이 아니라 ₩1,200이다. 틀린 표현 '증분이익 ₩800'은 '증분이익 ₩1,2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기존 판매 10대의 단위당 공헌이익 ₩60을 기회원가로 반영한 최종 증분이익은 ₩1,000이 아니라 ₩1,200이다. 틀린 표현 '증분이익 ₩1,000'은 '증분이익 ₩1,2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관련원가와 기회원가를 모두 반영한 증분이익이 ₩1,200이므로 옳다.
⑤ X — 계산된 증분이익은 ₩1,400이 아니라 ₩1,200이다. 틀린 표현 '증분이익 ₩1,400'은 '증분이익 ₩1,2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단위당 제조원가 ₩182 전체를 관련원가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그중 고정제조간접원가 ₩42는 특별주문 때문에 증가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반대로 기존 판매를 포기하여 잃는 매출 ₩2,000 전체가 아니라, 그 판매에서 얻었을 공헌이익 ₩600을 기회원가로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에서는 먼저 추가 수익과 추가 변동원가·개별 추가원가를 찾고, 유휴생산능력이 부족하면 포기한 기존 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더한다. 배부된 고정원가는 주문 수락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의 관련원가는 '추가 변동원가 + 주문 전용 원가 + 포기한 공헌이익'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사무실용과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 예산과 실제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20x1년도 공기청정기의 전체 실제시장규모는 1,050,000대이며, (주)세무의 시장점유율차이는 ₩1,023,750(유리)이다. (주)세무가 예상한 20x1년도 전체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는?

(20×1년 예산)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판매수량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180	₩120	30,000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135	₩90	90,000대

(20×1년 실제결과)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판매수량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165	₩112.5	37,800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120	₩82.5	88,200대

① 857,143대

② 923,077대

③ 1,100,000대

④ 1,150,000대

⑤ 1,200,000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예산 공헌이익과 예산 판매배합으로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시장점유율차이 공식에서 예산시장점유율과 예상 전체 시장규모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예산 판매수량은 사무실용 30,000대, 가정용 90,000대로 총 120,000대이다.
실제 판매수량은 37,800대와 88,200대로 총 126,000대이고, 실제 전체 시장규모는 1,050,000대이다.
예산 단위당 공헌이익은 사무실용 60원(180원-120원), 가정용 45원(135원-90원)이다.
시장점유율차이는 1,023,750원 유리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예산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다.
60×30,000120,000+45×90,000120,000=48.75원
시장점유율차이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체 시장규모×(실제시장점유율-예산시장점유율)×예산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시장점유율 변화로 늘거나 줄어든 판매량을 예산 공헌이익으로 평가하는 차이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실제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frac{126,000}{1,050,000} = 12\%$
2. 예산시장점유율을 b라고 하면 유리한 시장점유율차이 1,023,750원은 다음과 같다.
$1,050,000 \times (12\% - b) \times 48.75 = 1,023,750$
$12\% - b = 2\%, \qquad b = 10\%$
3. 예산 판매수량 120,000대가 예상 전체 시장의 10%이므로 예상 전체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120,00010\%=1,200,000대

선지 판단

① X — 857,143대는 예산 판매수량 120,000대를 역산된 예산시장점유율 10%로 나눈 값이 아니다. 틀린 수치이며, 올바른 예상 시장규모는 1,200,000대이다.
② X — 923,077대도 120,000대가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200,000대이다.
③ X — 1,100,000대라면 예산시장점유율은 약 10.91%가 되어 역산된 10%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1,200,000대이다.
④ X — 1,150,000대라면 예산시장점유율은 약 10.43%가 되어 역산된 10%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1,200,000대이다.
⑤ O — 120,000대를 1,200,000대로 나누면 예산시장점유율이 10%가 되며, 실제 12%와의 2%포인트 차이에 1,050,000대와 48.75원을 곱하면 1,023,750원 유리가 된다.

오답 포인트

실제 판매수량 126,000대를 예산 판매수량처럼 사용하거나, 실제 판매배합으로 공헌이익을 다시 가중하면 안 된다. 시장점유율차이는 실제 전체 시장규모에 실제시장점유율과 예산시장점유율의 차이를 곱하고, 이를 예산 판매배합에 따른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평가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제품 시장점유율차이 문제에서는 예산 제품별 공헌이익과 예산 판매배합으로 가중평균 공헌이익을 먼저 구한다. 이어 실제 판매량을 실제 전체 시장규모로 나누어 실제시장점유율을 구하고, 차이 공식으로 예산시장점유율을 역산한 뒤 예산 판매량을 그 점유율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시장점유율차이 = 실제 시장규모 × (실제점유율-예산점유율) × 예산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NoteBase